성북문화

『창간호』

목차

발간사 (조태권 원장님)

축사 (국회의원 신계륜, 국회의원 유승희)

특집① 성북동
1. 성북동의 역사와 문화(나각순)
2. 만해 한용운 선생과 심우장

특집② 미아리고개
1. 성북의 고개들
2. 한국전쟁시 창동미아리고개 전투(김유석)
3. 인터뷰: 미아리고개를 소재로 한 뮤지컬 『약속』

문화예술인 초대석
1. 손영목 (문예창작반 강사)
2. 이건자 (선소리산타령반 강사)
3. 어르신문화나눔봉사단 희흘낙樂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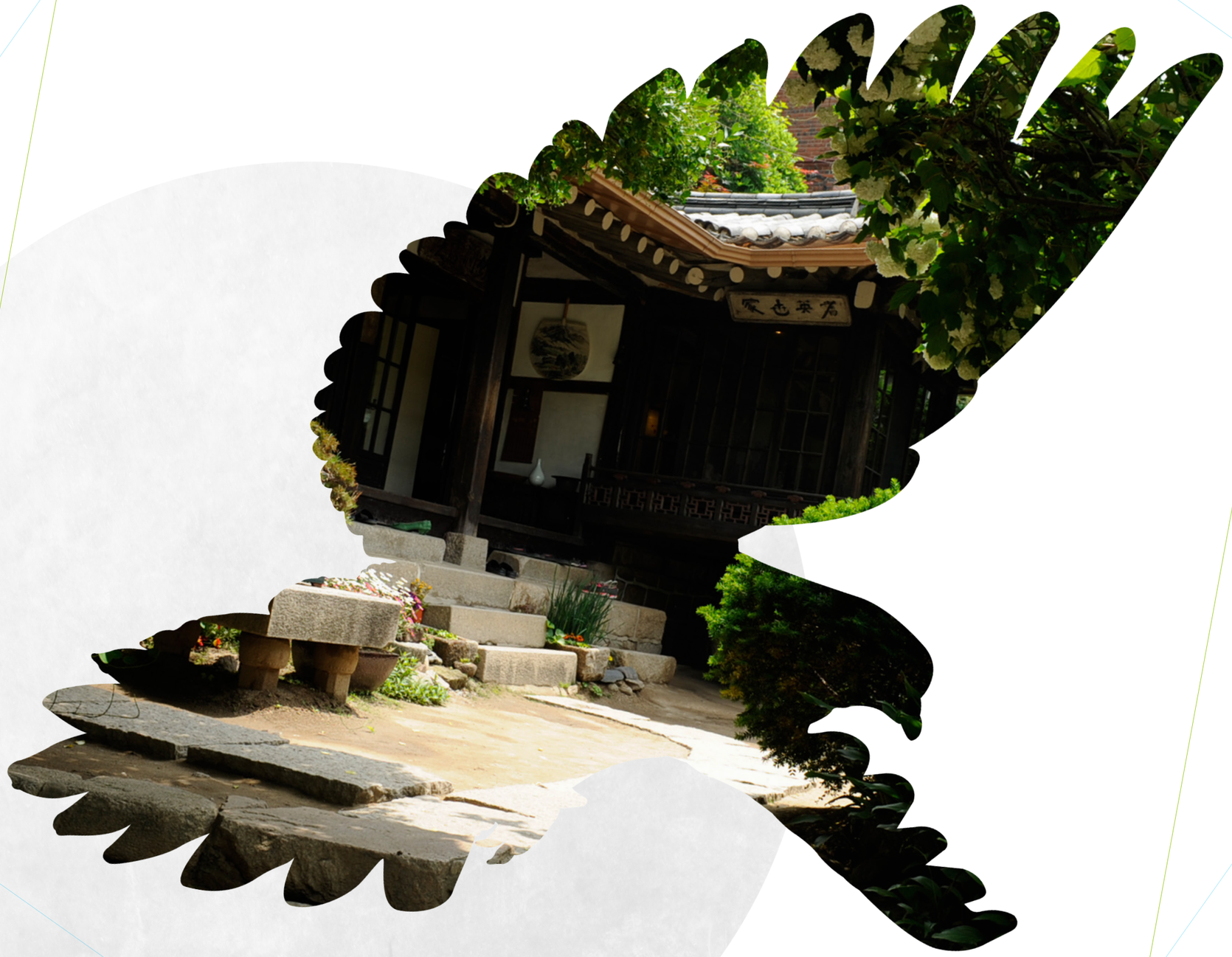
특집③ 성북구의 문화유산 시리즈
1. 백인산 (간송미술관 연구실장)
2. 서명일 (고려대학교박물관 학예사)

2013년 역사문화탐방
1. 상반기 영주(손순옥)
2. 하반기 고창

2013년 성북문화원의 활동과 성과
2014년 성북문화원의 계획과 방향

임원 명단
후원금 기부 명단

성북문화원 후원방법
편집후기



발간사 (조태권 원장님)

축사 (국회의원 신계륜, 국회의원 유승희)

특집① 성북동
1. 성북동의 역사와 문화(나각순)
2. 만해 한용운 선생과 심우장

특집② 미아리고개
1. 성북의 고개들
2. 한국전쟁시 창동미아리고개 전투(김유석)
3. 인터뷰: 미아리고개를 소재로 한 뮤지컬 『약속』

문화예술인 초대석
1. 손영목 (문예창작반 강사)
2. 이건자 (선소리산타령반 강사)
3. 어르신문화나눔봉사단 희喜낙樂

특집③ 성북구의 문화유산 시리즈
1. 백인산 (간송미술관 연구실장)
2. 서명일 (고려대학교박물관 학예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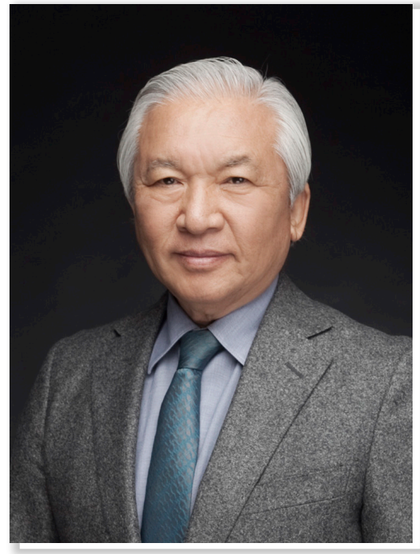
2013년 역사문화탐방
1. 상반기 영주(손순옥)
2. 하반기 고창

2013년 성북문화원의 활동과 성과
2014년 성북문화원의 계획과 방향

임원 명단
후원금 기부 명단

성북문화원 후원방법
편집후기

『성북문화』 인사말.



『성북문화원장 **조태권**』

도성의 북쪽에 위치하였다고 이름 붙인 성북구는 깊은 골과 맑은 개천의 수려한 장관으로 그 옛날부터 명승지로 널리 알려졌습니다. 오늘날까지 성북구에는 크고 작은 우리의 옛 역사가 살아 숨 쉬고 있으며 한편으로는 그 찬란한 맥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2013년 계사년의 해를 마감하며 처음 발간하는『성북문화』는 풍요로움과 지혜를 상징하는 뱀처럼 올 한 해 성북구 향토 문화 발전을 위해 추진한 땀의 결실과 돌아오는 갑오년, 활동성이 강하고 적극적인 말(馬)처럼 앞으로 더 크게 도약하자는 부푼 꿈을 담고 있습니다.
성북문화를 창간하도록 여러모로 성원하고 도움 주신 문화원 관계자 및 회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올 한 해 성북문화원은 선잠제향과 만해다례와 같은 전통 문화계승을 위해 힘썼을 뿐만 아니라, 지역민께 더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 뮤지컬을 만들기도 하고 영주와 고창에 함께 역사문화탐방을 떠나는 등의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앞으로도 성북문화원은 성북 지역의 문화를 연구·보존·전승하는데 그치지 않고, 지역민께 직접 문화 향유의 기회를 제공하여 성북구의 문화예술이 더욱 발전하도록 이바지하겠습니다.

또한, 올해 창간한『성북문화』를 통해 더욱 많은 분께서 우리의 아름다운 향토 문화에 관심을 기울이시고, 후대에까지 이르는 역사적 가치가 올바로 세워지고 계승되는 성북구로 발전하기를 진심으로 고대합니다.

끝으로 성북문화원을 위해 아낌없는 관심을 보내주신 관계자 및 회원 여러분 모두 다사다난했던 계사년의 한 해 잘 마무리하셔서 돌아오는 2014년은 더 큰 뜻 이루시는 새해 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축사.



국회의원(성북을) 신계륜

2013년의 저물어가는 태양을 바라보며 섭섭한 발걸음을 내딛는 찰나 들려온 성북문화원의『성북문화』창간소식은 아쉬웠던 마음을 따뜻하게 달래줍니다.

성북구는 우리의 유서 깊은 역사와 귀중한 문화 자산이 함께 공존하는 지역구지만, 그 맥을 잇기 위해서는 아직도 많은 관심과 발전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북문화원이 주도하는 문화 관련 사업은 더욱 뜻깊은 의의를 두고 있습니다.

올해도 성북문화원은 성북구에 있는 역사적 장소와 문화를 대내외에 알리는 사업에 누구보다 수고하였고 큰 성과를 이룩하였습니다. 문화원의 조태권 원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역민과 함께 이룩해 갈『성북문화』의 창간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이번 창간호를 시작으로『성북문화』가 회를 거듭할수록 지역구를 대표하는 계간지로 발전하길 바라며, 언제나 알찬 내용의 좋은 소식을 들려주길 바랍니다.



국회의원(성북갑) 유승희

현대 사회에 끊임없이 쏟아져 나오는 새 문화의 양상과 함께, 한편으로는 그만큼 우리의 전통문화가 단단히 뿌리를 내려야 현대와 전통이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성북문화원은 이미 유아에서 노년까지 아우르는 다양한 종류와 엄선된 질의 문화강좌로 지역민의 관심과 사랑을 듬뿍 받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북구의 전통을 이어가기 위해 지속적으로 많은 사업에 참여하는 것으로도 정평이 났습니다.

이렇게 성북구의 지역 문화를 위해 힘쓰는 성북문화원의『성북문화』창간 소식은 구민 가까이에서 성북구를 알리고, 역사와 문화가 살아 숨 쉬는 공간으로 더욱 발전시킬 수 있겠다는 기대를 하게 만듭니다.

『성북문화』라는 조그만 책자 사이에 담긴 성북의 삶과 역사가 훗날 어느 문화적 유산보다 큰 값어치를 지닐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성북문화』창간호의 축하 인사와 함께 성북문화원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01.

특집1_ 성북동

성북동은 남서쪽으로 서울 한양도성이 지나고, 북서쪽으로는 구준봉 능선으로 이어져 한양도성 곡성이 있는 275m 고지에 이르는 산세로 이루어져 있다. 동북쪽으로는 팔각정 앞에서 북악산길을 경계로 성북구 정릉동과 경계를 이루며, 동남방향으로 돈암동·동소문동·삼선동과 경계를 이룬다.

나 각 순(서울특별시사 편찬위원회 연구간사)

성북동의 역사와 문화

목 차

1.성북동의 위치와 동명유래

2.행정구역의 변천

3.자연지리적특징

4.주거환경의 변화

5.현황과 전망

취재_ **김태희**(가삼기획)
사진_ **한예슬**(성북문화원 학예사)



최순우 옛집의 소담한 정원



최순우 옛집의 정겨운 장독들

1.성북동의 위치와 동명유래

성북동은 남서쪽으로 서울 한양도성이 지나고, 북서쪽으로는 구준봉 능선으로 이어져 한양도성 곡성이 있는 275m 고지에 이르는 산세로 이루어져 있다. 동북쪽으로는 팔각정 앞에서 북악산길을 경계로 성북구 정릉동과 경계를 이루며, 동남방향으로 돈암동·동소문동·삼선동과 경계를 이룬다.

성북동의 명칭은 넓은 의미에서 조선시대 도성을 축조함에 따라 오늘날 서울 한양도성의 북쪽에 위치한 마을이었던 데서 유래되었다. 즉, 1392년 조선왕조가 개성에서 개창되고, 1394년 한양천도가 실현되자 성북지역은 수도 한성부의 성저십리(城底十里) 지역에 해당되었다. 약 18.627㎞의 도성이 수축됨과 더불어 4대문 가운데 하나인 숙청문(肅淸門, 후에 숙정문肅靖門) 즉 북대문이 오늘날 삼청터널 위쪽에 건립되고, 4소문의 하나인 홍화문(弘化門, 후에 惠化門)이 건립됨에 따라 도성의 북쪽지역이라는 지리적 위치에 따라 지명을 얻게 되었던 것이다.

한편 조선 후기 도성수비를 위하여 설치된 3군문(三軍門) 가운데 어영청(御營廳)의 북창(北倉)이 있어 이를 북둔(北屯, 도성 북쪽에 있는 군사주둔지로 둔전을 두어 경비에 충당하였다.)이라 불렀기 때문에 성북이라는 이름이 생겨난 것으로 볼 수 있다.

«한경지략» 명승조 북사동(北寺洞)에 보면 혜화문 밖에 오랜 묵사(墨寺)가 있고 북둔이 있어 북사동이라 하였으니, 성북이란 고을 이름은 말 그대로 도성의 북쪽에 북둔이 있었기 때문에 불리어진 것이라 하겠다.

2.행정구역의 변천

성북동은 태조 5년(1396) 4월 한성부 5부 방리명(坊里名)를 정하여 경계 표석을 세울 때 동부에 속하였다. 5부 방리는 도성 안과 성외 10리 지역으로 하였다.

고종 4년(1867)에 편찬된 «육전조례»에는 성북동일대에 해당하는 동부 숭신방(崇信坊)에 월곡리계, 미아리계, 안암동계, 종암동계, 장위리계, 능동계, 수유촌계, 가오리계, 우이동계 등이 편입되어 있어, 오늘날 성북구·강북구 일대가 모두 동부 숭신방 지역이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성북동 이름이 구체적으로 행정구역 이름으로 처음 등장하는 것은 1894년에 실시된 갑오경장에 의해 이듬해 행정구역 개편이 이루어지면서부터이다. 즉 이때 한성부 동서(東署) 숭신방 성외지역으로 동소문외계에 소정릉동·손가정·청수동·미아리·번리·대수유리·가오리·우이리와 더불어 성북동이 등장하고 있다.

1911년 한성부를 경성부로 개칭함과 더불어 경기도 관할로 격하시키면서, 한성부 성외 8방을 8면으로 고치면서 5부 8면제를 실시하였다. 이때 숭신방은 숭신면이 되었으며 성북동은 이에 편입되었다. 1914년 4월 1일 경성부 관할구역

성북동 수연산방의 앞마당



을 축소하면서 성북동은 숭신면 일원과 인창면 지역을 통합하여 만들어진 경기도 고양군 숭인면에 편제되어 성북리로 칭하게 되었다.

1936년 4월 1일 경성부의 관할구역 확장이 되어, 종래 고양군의 한지면, 용강면 일원과 숭인면·연희면·은평면 각 일부가 다시 서울로 편입되었다. 이때 성북동은 경성부에 편입되어 동부출장소 관할의 성북정(城北町)이 되었다. 이어 1943년 6월 10일 구제를 실시함에 따라 동부출장소 관할구역을 분리하여 동대문구와 성동구가 신설되었으며, 이때 성북동은 동대문구에 속하게 되었다. 그리고 1946년 10월 1일에 실시된 일본식 동명의 개정에 따라 성북정이 성북동으로 고쳐져 현재에 이르고 있다.

1949년 8월 15일 대통령령 제159호로 동대문구 일부 지역과 경기도 고양군 숭인면의 새로 편입된 지역을 합하여 성북구가 신설되자, 성북동은 성북구에 속하게 되었다. 이때 성북천에 놓인 운수교(雲水橋)를 중심으로 도로 남동쪽은 성북동1가, 도로 서쪽은 성북동2가로 나뉘었다. 1955년 4월 18일 서울특별시 조례 제66호에 의해 동제(洞制) 실시에 따라 성북동의 1가동 2가동은 그대로 존속되었으며, 이후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한편 성북동2가는 대부분 산지로 이루어져 있으며, 성북동1가에 비해 면적과 인구가 반비례하여 현저하게 차이가 있다.

3.자연지리적 특징

성북동은 백두대간에서 뻗은 한북정맥의 거의 마지막 부분에서 우뚝 솟은 삼각산에서 북악으로 이어진 산줄기 가운데 서울 한양도성이 남하하는 분기점인 275m 고지를 주산으로 하고 구준봉을 좌청룡으로 하여 북악스카이웨이를 이루는 산줄기로 이어져 있다. 숙정문과 삼청터널 위를 지나 성균관대학교 뒷산인 응봉으로 이어져 서울 한양도성이 축조된 산세를 우백호로 하며, 그 사이를 흐르는 성북천을 명당수로 한 지세로 이루어져 있다.

응봉 아래부터는 종로구 쪽 성안으로는 성곽을 따라 역사탐방로를 개설하여 산책로로 잘 정리되어 있으며, 성북구 쪽 성 밖으로는 주택가와 이어져 있어 정비를 필요로 하고 있다. 한편 경신고등학교 뒷면에서 혜화문에 이르는 지역은 주택이 점유하고 있어 산세를 찾아보기 어렵다.

성북동의 동북쪽 좌청룡을 이루는 산줄기는 구준봉 근처와 정릉동의 경계를 이루는 지역은 북악산길을 따라 수목이 보존되어 있고, 외국 대사관저와 꿩의바다 마을 등 고급 주택가 일원의 산세도 경관이 뛰어나다.

성북천은 중랑천의 제1지류인 청계천의 제1지류로서 한강을 기준으로 볼 때 제3지류에 해당한다. 북악 동쪽 기슭에서 발원하여 남쪽으로 흘러 서울 한양도성을 따라 내려오다가 신설동 동광교회 옆에서 청계천과 합류하여 중랑천으로 흘러 들어가 다시 한강과 합류하는 물줄기다. 안암동을 거쳐 흘러가면서 안암천이라고도 부른다. 성북구 성북동 13-245번지를 기점으로 청계천과 합류하는 지점까지 연장 5.11㎞, 유로연장 7.7㎞, 유역면적 7.28㎢의 하천이다.

성북동을 관통하는 성북천 전 구간은 콘크리트와 자연석·흙 등으로 저수로의 경사진 면과 둔치·제방이 잘 정비되어 있다. 한편 청계천복원사업의 사전작업으로 진행된 청계천 지류 복원을 통한 자연친화적인 하천복원사업으로 성북구청 인근의 성북천이 본래의 하천 모습으로 복원되어 주민들로부터 각광을 받고 있다.

성북천은 조선시대 한양도성 북쪽에 있었기 때문에 이름이 붙여졌으며, 그 물줄기는 맑고 상류에 기암괴석이 있어 물과 돌이 잘 어우러진 자연경관을 연출하고 있었기 때문에 많은 풍류객들이 모여들었다. 맑은 계곡과 언덕을 끼고 사람들이 모여 사는데 복숭아를 심어 생업을 삼고 있다. 매년 늦은 봄이면 놀이를 나온 사람들과 수레와 말이 두 줄을 지어 가득하게 산 계곡 사이를 메우고 있으며, 깨끗한 초가집이 많이 있었다.

성북천을 중심으로 한 혜화문 밖 일대가 많은 상춘객들이 몰리는 곳이었으며, 복숭아를 생산하여 도성으로 갖다가 팔아 생업을 유지하기도 하였다. 아울러 복숭아꽃을 구경하기 위해 몰려드는 사람들도 많았다고 하며, 계곡이 깊고 지형이 험하여 도둑들이 많이 숨어 있는 장소로도 유명하였다고 한다. 1960년대까지만 해도 맑은 물이 흘러가고 있었기 때문에 개구쟁이들이 물놀이를 즐기고, 아낙네들이 빨래를 들고 개천으로 모여들기도 하였다고 한다.



4.주거환경의 변화

성북천이 혜화문(동소문) 밖에서 동쪽으로 흘러 청계천에 합류하게 되는데 이 개천은 1950년대까지만 해도 맑은 물이 흘러 물놀이를 즐기고 빨래하는 여인의 모습을 볼 수 있었다. 그리고 성북천이 구부러져 동쪽으로 흐르는 남쪽과 북쪽의 산지는 서로 통하여 오랜 소나무가 울창하였다. 이러한 모습은 18세기 겸재 정선이 그린 〈동소문도〉에서 보는 소나무 울창한 사이에 시냇물이 흐르고 그 사이에 민가가 자리하고 있는 모습과 같은 풍광을 보여주고 있다.

이와 같이 조선시대 도성 밖의 군사주둔지에 군량미 창고가 있던 동네로 출발한 성북동은 자연경관은 뛰어났으나 많은 주민이 모여 살았던 동네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특이한 사실은 조선왕조가 한양으로 천도한 이래 동촌에 성균관이 자리함에 따라 문묘에 제사지내는 희생(犧牲)을 담당하였던 관(館)사람들이 명륜동·혜화동 일대에 거주하면서 가죽을 다루는 갖바치들이 혜화문 밖에 거주하였다고 하니, 현재의 성북동·삼선동 일대로 추정할 수 있다.



성북동 최순우 옛집



수연산방의 돌담과 정문

한편 경승이 뛰어났던 성북동 일대는 일찍이 선잠단과 영성단이 자리하여 신성한 제단을 경영하였으니 이에 관련하여 양잠과 관련된 사람들이 거주하였을 것이다. 또 숙정문과 혜화문을 지키는 군사와 어영청 북둔의 군사들, 묵사에 관련된 승려 등이 주민구성의 대부분을 이루고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성북천 물가를 따라 복숭아와 앵두꽃 밭을 형성하며 약간의 주민분포가 이루어졌던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그리고 조선 철종 때 이조판서를 지낸 심상응(沈相應) 별장인 성락원(城樂園)이 조성되어 의친왕 이강(李堈)이 머물게 되자 이와 관련된 사람들이 주거하였다.

또한 이곳 주민들이 복숭아농사를 지어 생업으로 하였다는 기록으로 보아 구릉지대에 과수단지가 조성되어 있던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성북동은 혜화문 밖으로 서울도성에서 원산으로 향하는 교통 길목에 있어 상공업이 발달할 수 있는 여건이 성숙되어 있었으나 성북동은 물줄기의 상류지역에 위치한 곳으로 중심지에서는 약간 거리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삼선평(三仙坪)의 평지를 하류로 하여 계류가 발달한 산간지역의 산림이 울창한 지역이었던 것이다.

성북동 지역의 인구통계로 가장 오래된 것이 1915년의 것으로 당시의 인구수는 810명이었다. 광복 후 1949년 통계에 의하면 당시 인구는 13, 372명으로 6·25전쟁으로 인구가 줄어 1953년에는 5,546명으로 나타나고 있다. 다음 1961에는 인구가 다시 회복되어 18,535명이 되었으며, 그 10년 후인 1970년에는 27,746명(성북제1동 9,462명, 성북제2동 18,254명)으로 크게 증가하였다.

이러한 인구증가와 더불어 산기슭에 이르기까지 무허가 건물이 무분별하게 건축되었으며, 김광섭(金光燮)의 〈성북동 비둘기〉에서 말하는 달동네의 애환이 등장하기도 하였다. 특히 6·25 전쟁 이후 서민들의 무허가주택이 즐비하게 들어서기에 이르렀고, 이들의 재개발에 의한 주거환경의 개선은 오늘날까지 계속되고 있다.

그러한 반면 성북동 좌청룡의 산언덕에는 재벌그룹의 저택과 외국 대사관저가 곳곳에 자리하여, 서울 최고의 고급주택단지로 발전하였다. 특히 성락원이 있는 일대는 호주대사관저를 비롯하여 대부분 정계와 재계의 유명 인사들이 살고 있는 곳으로 알려져 있다. 마을을 둘러싸고 있는 긴 담장으로 외부와 차단되어 있으며 구준봉에서 내려오는 계곡물을 막아 놓아 마을 곳곳에는 작은 연못을 꾸며 조경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성락원 마을 서쪽에는 '꿩의 바다 마을'이라 불리는 특이한 주택단지가 발달해 있다. 이곳은 삼각산 줄기의 산세를 이은 곳으로 울창한 나무와 암석들로 둘러싸여 산새와 까치·꿩·산비둘기 등이 많이 서식하고 있었다. 이 마을은 깊은 산속의 계곡이므로 시냇물이 흐르고 폭포수와 '삼형제 우물'이라는 약수터가 있었으므로, 인근 마을사람들의 산책로와 휴식처가 되어 여름철에 각광을 받았다.

그리고 '꿩의 바다마을' 서쪽 일대를 '삼청주택단지' 또는 '대교단지'라고 부르는데, 이곳에 고급주택이 분양되어 사회 저명인사와 대기업의 회장 등이 입주하였고, 외국대사관 관저가 이곳에 위치하게 되었다. 즉 일본대사관저, 캐나다대사관저, 독일대사관저, 터어키대사관저 등이 있어 종로구 가회동과 용산구 한남동 일대와 더불어 가히 '대사관촌'이라 할 수 있다. 아울러 이곳에는 외국인들의 집단주거지가 되기도 한다.

그리고 성북동 곳곳에는 19세기 이후에 건축되거나 옮겨온 성락원, 이태준가, 이종석가 등 우리 전통한옥이 자리하고 있고, 또 길상사·삼청각 등 근래에 최고의 한옥건축기술을 투여한 건물들이 위치하고 있어 고급의 전통건축과 실용적인 현대건축이 조화되는 주거환경이 마련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조선시대부터 묵사가 자리하였던 전통은 오늘날도 그대로 이어져 청룡사를 비롯하여 수월암(水月庵)과 성라암(星羅庵) 그리고 비구니대학 등이 위치하고 있다. 오늘날 삼청각 자리로 추정되는 청룡사는 청룡암이라고도 하였으며, 옛부터 미륵석상이 노천에 세워져 미륵당이라 불렀다. 이는 1969년에 동소문동으로 이전하였는데, 옛문헌에는 구준봉 아래 자리하고 있었다고 소개하고 있다. 조선 철종 때 영의정을 지낸 안동김씨 외척세력의 거두인 김좌근이 1853년에 창건한 것으로 전해지며, 조선 말기 많은 문인들이 이곳을 소재로 시를 짓기도 하였다. 이와 같이 조선 후기 외척세력인 안동 김씨들이 도성 안팎에 별장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삼청동의 김유근별장, 백악 뒤 부암동의 백석동천 등과 더불어 도성 인근의 명승지에 그들의 원찰과 별장을 건축하였던 사실과 연계되어 주목되는 사찰이었다.

비구니대학은 성북동 284번지에 있는데, 일찍이 김일엽 스님이 말년에 주지로 있던 조계종계 성라암 자리에 대학이라 명칭을 붙이고 한국비구니회 총본부로 쓰이고 있다. 또 비구니대학 건너편 길가에는 삼각산 수월암이 있는데, 이는 1966년에 창건공사를 시작하여 1972년에는 7층 연화탑을 세우는 등 중창불사를 계속하였다.

근래에는 3·4공화국 요정정치의 요람이었던 대원각 자리에 길상사가 개원하여 심신의 수양을 갈구하는 현대인들의 휴식처가 되고 있다. 이외에 크고 작은 수십 개의 절들이 깊



수연산방의 안마당

은 계곡과 맑은 샘물, 푸른 소나무 그늘 사이에 자리하고 있어, 성북동골짜기는 가히 절골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이다.

이러한 성북동의 종교적 기능은 근래에 들어 천주교의 프란체스코수도원 기도원을 비롯하여, 개신교 장로교의 덕수교회 등이 자리함으로써 더욱 확장되어 성북동은 종교마을이 된 느낌을 받기도 한다.

한편 성북동에는 교육기관도 많이 들어서 있으니, 성북동 60번지 성북초등학교를 비롯하여 성북동 150번지에는 성북중고등학교에서 발전한 홍익대학교사범대학 부속중고등학교가 있다. 더불어 성북동1가 165-275 산록에는 동구여자중학교와 동구마케팅고등학교가 위치해 있으며, 성북동 226-91번지에는 정신박약아를 교육하는 특수학교인 서울명수학교가 자리하고 있다.

아울러 한양도성을 경계로 혜화동과 명륜동에는 경신중고등학교·서울과학고등학교·성균관대학교가 자리하고 있고, 동소문로를 건너 한성대학교·성신여자대학교 등이 있어 교육입지조건이 매우 좋다고 할 수 있다.

한편 도로조건은 근래까지 계곡마을로써 교통이 불편할 정도였다. 즉 도성 안에서 성북동에 오려면 혜화동로터리에서 경신고등학교를 지나 성벽이 허물어진 고개를 넘거나, 삼선교에서 성북천을 따라 난 길을 이용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다가 1968년 1·21사태 이후 인왕산과 북악산의 능선을 잇는 북악스카이웨이(북악산로)가 착공 개통되어 이 길이 성북동으로 이어졌고 이 길은 세검정에서 북악터널을 지나 정릉동으로 이어지는 정릉로와도 이어졌다. 또 종로구 삼청동과 연결되는 삼청터널이 뚫려 경복궁 앞 서울 중앙에서 곧바로 성북동에 이어졌으며, 이 길은 대사관길로 명명되어 북악산길과 이어진다. 또 선잠단에서 북악산길까지 선잠로가 이어져 있어, 이제 성북동은 도로와 교통이 불편하다고 할 사람은 별로 없다.

한편 성북천을 따라 자연스럽게 나있던 길이 현재 성북천이 복개되면서 폭 10~15m, 길이 2,950m의 성북로는 삼청터널 -성북동1가- 한성대입구역으로 이어져 있으며, 그 끝에서 동소문로를 따라 도봉구·의정부·철원·원산으로 이어져 대한민국의 간선도로 구실을 하고 있다. 그리고 성북로에서 산기슭으로 이어지는 길이 거미줄처럼 발달되어 있어 접근과 분산이 용이하며, 근래에는 산 능선상에도 마을버스가 다닐 정도로 도로가 잘 나 있다.

상권 또한 성북동1가와 2가 경계지점에 비록 작은 규모지만 재래시장이 있었고, 삼선교 일대에 시장이 발달되어 있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그리고 성북동길 좌우에는 별미를 자랑하는 음식점들이 발달되어 있어 식도락들이 즐겨 찾기도 한다. 그리고 한때 밀실정치·요정문화의 산실이었던 대원각·삼청각의 존재도 성북동의 수려한 자연환경을 배경으로 한 주거환경의 특징이었다. 나아가 이들이 길상사라는 민생에 친근한 사찰로 변하였고, 삼청각 또한 서울특별시에서 운영하게 됨에 따라 우리의 민속전통문화를 계승하는 문화창조의 장으로 변신을 꾀한 것은 성북동의 문화적 공간 확대라는 의미가 큰 것으로 볼 수 있다.



성북동 선잠단지 전경



성북동 심우장의 뒷뜰

6. 현황과 전망

성북동은 조선시대 이래로 계곡마을을 이루어 경관을 자랑하며 시인 묵객들이 즐겨 찾는 곳이었다. 따라서 골짜기에는 사찰과 군영이 발달하였고 특히 종교적 성격이 강한 지역이었다. 아울러 현실정치의 어지러움을 피해 은둔하고 재기를 다짐하는 곳이기도 하였다. 따라서 일반 주민들의 산기슭을 이용한 복숭아 등 과수를 재배하여 생업을 삼는 곳이기도 하였다. 이러한 자연환경은 해방 후 풍치지구로 지정하여 서울성곽과 삼각산자락의 울창한 나무숲과 맑은 시냇물이 흐르게 하는 자연보호를 받게하였던 곳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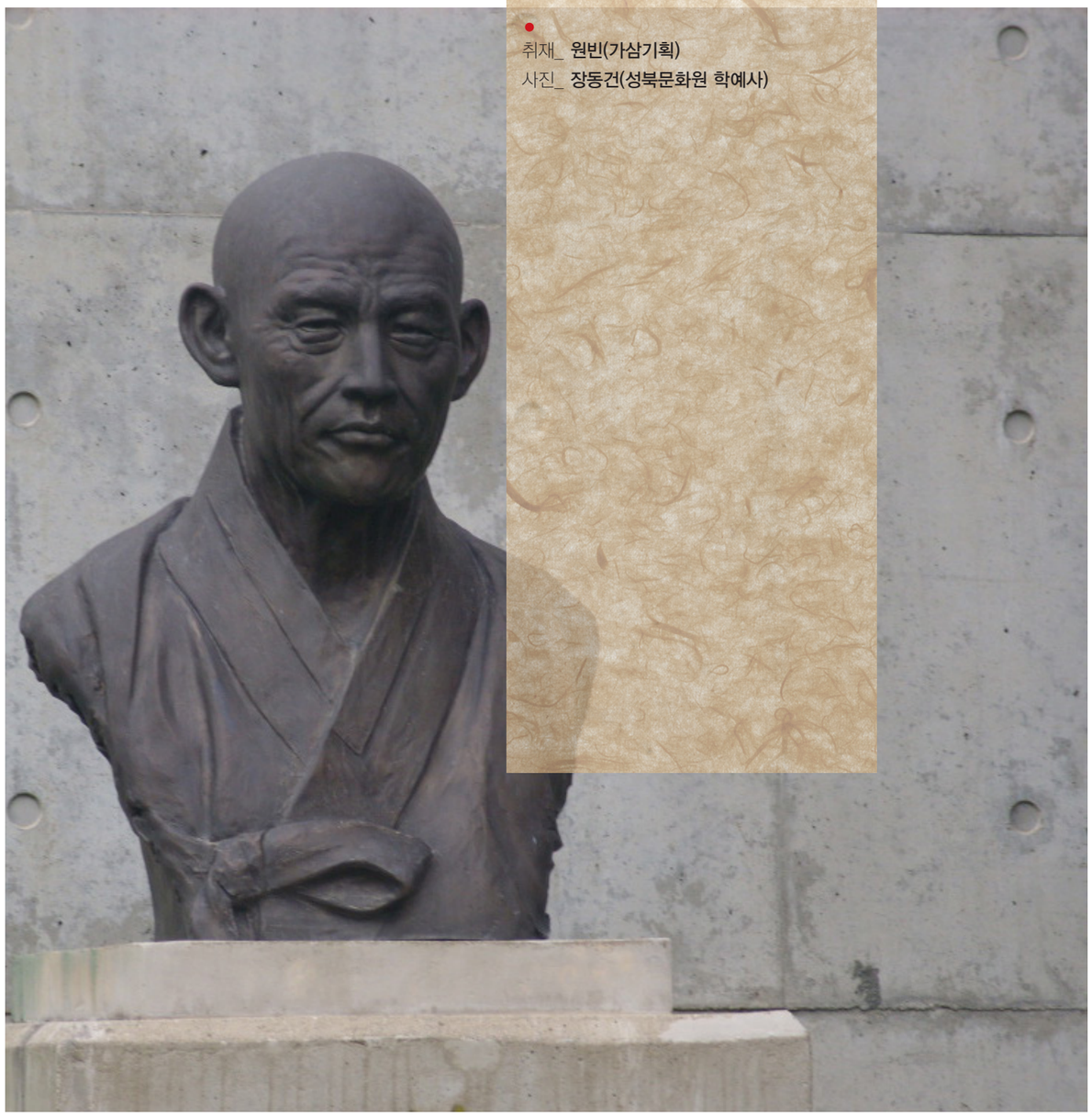
그러나 해방과 6·25전쟁 등의 인구증가와 택지 개발 압력은 점차 이곳에도 영향을 주어 주거공간으로 발달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이미 기본 성격으로 자리하였던 종교적 기능, 시인 묵객과 정치인들이 은둔하고 풍류를 즐겼던 별서의 기능은 오늘날에도 그 흔적을 그대로 남기고 있다. 이후 자연풍광을 전재로 하는 고급주택의 건립은 성북동의 다른 색깔을 연출하였다. 따라서 성북동은 아직 영세민이 사는 무허가 주택과 대한민국 최고의 주택지와 외국 대사관저가 즐비하다는 2중성을 가지고 있다.

이제 도로 교통의 정비와 더불어 성북동 지역은 깊숙한 골짜기 마을을 탈피하여 수려한 자연경관을 배경으로 한 쾌적한 주거공간으로 다시 태어나고 있다고 하겠다. 나아가 역사성을 가진 삶의 흔적과 교육환경의 친근성을 배경으로 안정된 생활공간으로 정비되어 갈 것이다. 특히 2013년 10월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성북동 역사문화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안이 가결되어, 성북동 지역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역사·문화·자연유산이 어우러진 명소로 발돋움하게 될 것이다. *Fin.*

만해 한용운과 심우장

가나다라 마바사 아자차타 카파하 가나다라마바사 아자차타타파하 가나다라마바사 얄리얄리 얄랑셩 얄라리얄라 품바품바 아싸라비야 꿍짝쭝짝 아옳옳옳

취재_ **원빈(가삼기획)**
사진_ **장동건(성북문화원 학예사)**



● 심우장_

서울특별시 성북구 심우장길 16. 이곳에 이 도로명의 주인공인 심우장(尋牛莊)이 자리하고 있다. 이곳이 어떤 곳이기에 도로명의 주인공이 되었을까? 불교 유신론을 주장한 스님이자, 민족대표 33인 가운데 한 명이었던 독립운동가이자, 님의 침묵을 쓴 시인인 만해(萬海) 한용운(韓龍雲) 선생이 55세가 되던 1933년부터 1944년 6월 29일 입적 할 때까지 살던 곳이 바로 이 심우장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심우(尋牛)는 무슨 뜻일까? 찾을 심(尋)에 소 우(牛), 말 그대로 풀면 소를 찾는다는 뜻이다. 그러나 불교에서 찾는 소는 단순한 소가 아니라 인간의 본성이다. 따라서 소를 찾는 과정은 인간이 본성을 찾아가는 과정이다. 만해에게 심우장은 인간의 본성을 찾는 곳이었다. 그는 심우장에 대해 다음과 같은 시조도 남겼다.



승무

잃은 소 없건마는
찾을손 우습도다
만일 잃을씨 분명하다면
찾은들 지닐소냐
차라리 찾지 말면
*또 잃지나 않으리라_*

인간의 본성을 찾아 나서지만 그것은 본래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것이라는 내용이다. 그러니 잃은 것도 없고 다시 찾을 것도 없다.

심우장은 많은 이들의 도움으로 성북동에 자리 잡을 수 있었다. 벽산 스님은 자신의 집을 짓기 위해 사 두었던 땅을 내 놓았고, 집을 짓는 자금은 방응모, 박광 등이 마련하였다. 만해는 이곳에서 부인 유숙원(俞淑元)과 결혼하였는데, 이때 그녀가 가져온 지참금도 공사 자금으로 사용되었다. 설계는 수학교사인 최수동이 맡았다. 처음 남향으로 공사가 시작되었지만, 총독부 건물과 마주하기 싫었던 만해는 북향으로 집을 짓게 했다.

이렇게 완성된 심우장에 살며 만해는 많은 일화를 남겼다. 1934년에는 딸 영숙(英淑)이 태어났다. 그의 나이 56세의 일이었다. 여러 잡지와 신문에 논설과 수필, 소설 등을 연재

하는 것을 게을리 하지도 않았다. 그의 유명한 소설 '흑풍'을 조선일보에 연재한 것도 심우장에서였다. 육당 최남선에게 '내가 아는 최남선은 벌써 죽어 장송(葬送) 했소!'라고 일갈 했던 것도, 최린이 딸 영숙에게 준 돈 20원을 돌려준 것도 이곳 심우장에 살 때 이야기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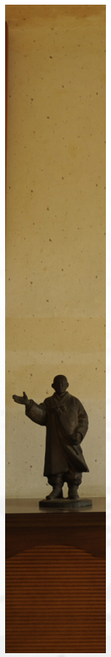
하지만 만해는 그렇게 꽉 막히고 무서운 사람이 아니었다. 친일을 하는 사람만 아니라면 심우장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었다. 민족운동가와 스님, 문학인은 물론이고 남녀 문제로 고민하는 사람, 자살하려는 사람, 학병에 외아들을 보낸 노모 등 다양한 사람이 찾아왔다. 만해는 이들의 고민을 들어주고 그에 알맞은 조언을 해주었다.

애국지사 일송 김동삼 선생의 장례를 치른 것도 심우장에 시절이었다. 김좌진 장군과 함께 만주에서 독립운동을 하던 김동삼은 1931년 일본 경찰에 체포되어 옥고를 치르다 1937년 서대문 형무소에서 옥사한다. 일제는 그의 시신을 수습해가라고 공고를 냈지만, 총독부가 무서워 그 누구도 시신을 수습해가지 않았다. 이때 나선 것이 만해 였다. 그는 심우장에서 5일장을 치렀다. 아무도 수습해가지 않은 시신이었지만, 김동삼의 장례식엔 수백 명이 모였다. 장례 당시 만해는 김동삼의 영구(靈柩)를 껴안고 통곡을 했다고 전한다. 이 장례를 도와준 사람이 당시 성북동에 거주하던 시인 조지훈과 그의 부친인 조헌영이다. 조지훈은 '승무'를 1939년에 발표했다. 그 사이에 어떤 연관이 있는 것은 아니었을까?

많은 부침(浮沈)이 있는 그의 일생에서 심우장에서의 삶은 그나마 평온한 나날이었다. 그의 수입은 비록 원고료 정도 밖에 없었지만, 주변 사람들의 도움으로 아주 궁핍한 생활은 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의 일생은 마지막을 향해 가고 있었다. 1943년 겨울, 만해는 눈을 쓸다가 쓰러졌다. 이로 인해 한동안을 반신불수의 몸으로 보내야 했다. 봄이 오자 차도가 있어 지팡이를 짚고 마당출입 정도를 할 수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만해는 떠났다. 딸 한영숙의 글에서 그의 마지막을 살펴보자. *fin.*



심우장 한용운 선생의 방



"그러던 어느 날 밤(봄날이었습니다) 자정쯤 되었는데, 아버님께서 일어나 앉아 계시면서 어머님께 하시는 말씀이, 공습경보가 울리는데 창문에 검은 휘장을 내리치라고 말씀하시고 자리에 누우시는 것을 보고 잤는데, 이튿날 아침 어머님과 함께 잠에서 깨어 보니, 언제부터인지 아버님께서는 혼수상태에 빠지신 채 말씀 한마디 못하시고 누워 계신 것을 본 순간, 너무도 기가 막혀 울음도 안 나오던 그때 생각이 지금도 역력합니다. 그렇게 묵묵하신 채로 몇 시간을 고통 속에서 보내시다 그날 오후에 세상을 떠나셨습니다.(나라사랑_2집)"

그날은 1944년 6월 29일, 만해의 나이 66되던 해였다. 그토록 갈망하던 조국 광복의 순간을 1년 남짓 남겨놓은 시점이었다. 만해가 광복을 보았다면 어떤 시를 썼을까? 이런 상상을 하면 만해의 이른 입적은 더욱 안타깝기만 하다.

※ 성북문화원은 2008년부터 심우장에서 만해 한용운 선사 다례를 이어오고 있으며, 2014년에는 70주기 추모행사를 개최할 예정에 있다.

02.

특집2_
미아리 고개

성북동은 남서쪽으로 서울 한양도성이 지나고, 북서쪽으로는 구준봉 능선으로 이어져 한양도성 곡성이 있는 275m 고지에 이르는 산세로 이루어져 있다. 동북쪽으로는 팔각정 앞에서 북악산길을 경계로 성북구 정릉동과 경계를 이루며, 동남방향으로 돈암동·동소문동·삼선동과 경계를 이룬다.

한국전쟁 창동·미아리고개 전투 (김유석)

합동군사대학교 중령 김 유 석

가나다라 마바사 아자차타 카파하 가나다라마바사 아자차타타파하 가나다라마바사 얄리얄리 얄랑셩 얄라리얄라 품바품바 아싸라비야 꿍짝쭝짝 아옳옳옳

1. 서론

1950년 6월 25일 04:00를 기해 북한군의 기습남침으로 서울에서 가장 가까운 의정부축선의 상황은 6월 26일 13:00경 의정부가 피탈되었고, 27일 11:00경에는 창동방어선이 돌파되었으며, 마지막 방어선이었던 미아리방어선도 28일 01:00경 붕괴됨으로써 서울시내로 북한군의 전차가 들어오는 계기가 되었는데, 이 과정에서 국군이 마지막으로 서울을 방어하기 위해 결전을 시도했던 것이 현 성북구 관할지역에 있는 '미아리지구 전투'이다.

이와 같은 배경 하에서 이글은 두 가지의 목적을 갖고 작성하였는데, 하나는 6·25전쟁초기 창동·미아리전투의 전황을 살펴보고 이것이 갖는 의의를 알아보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미아리지구전투에서 나타난 애국애족정신을 높이 고양하기 위해 관련된 호국인물 및 기념물에 대해 성북구에서 추진해야할 선양(宣揚) 방안을 제언(提言)하고자 했다.

2. 6·25전쟁 전기(前期) 성북지역의 주요 전황(戰況)

가. 창동지구전투

당시 창동은 의정부 남쪽으로 10km, 서울 북방 7km되는 지점으로 대략 의정부와 서울의 중간 정도에 위치하여 '서울 사수'를 위한 최후의 방어선으로 판단하였다.

6월 26일 15:00경 국군은 창동에서 대기 중이었던 제2사단 예하 제25연대와 제16연대 2대대를 의정부 남방 백석천에 배치하여 적을 저지함으로써 창동방어선 준비여건을 보장하고 의정부에 대한 역습의 발판으로 삼고자 하였다.

26일 17:00부로 의정부지구전투사령부가 양주군 노해면 지서(현 쌍문지구대)에 설치되었고 강문봉 대령을 책임자로 임명하여 구성된 '육군전방지휘소'도 의정부지구전투사령부와 합류하였으며 북한군은 제4사단과 제105전차여단(-)을 의정부에서 서울방향으로, 제3사단을 퇴계원에서 서울 동북방향으로 투입하여 공격을 하였다.

백석천에서 제2사단 제25연대와 제16연대 2대대가 27일 새벽까지 북한군을 저지하고 있는 가운데 제25연대가 북한군 제4사단의 보전협동공격으로 04:00경 방어선이 돌파되어 창동방어선으로 철수하였다.

27일 08:00경 창동방어선에 집결한 국군은 부대별로 300~700명 수준으로 총 1개 연대규모의 병력이었으며 서로부터 제2사단 제25연대 2대대(우이동), 수도경비사령부 제3연대(현 쌍문근린공원), 제2사단 제5연대(현 쌍문2동), 3번국도 동쪽에 제2사단 제16연대(현 창5동) 등 4개부대로 전방에 배치하고 제7사단 제1연대를 사령부 부근(현 쌍문동 한전병원)에서 예비로 하는 창동방어선을 구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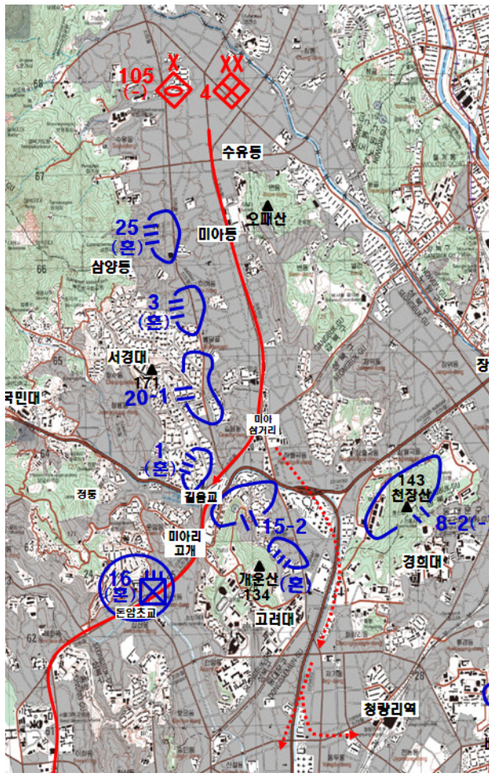
비록 창동방어선이라고는 하지만 대부분 일선형 배치인데다가 긴급히 주변병력을 통합하여 배치하다 보니 지휘계통의 혼선과 탄약재보급과 급식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북한군의 공격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다.

새벽(27일 04:00) 백석천을 돌파한 북한군 전차부대는 3번 도로를 따라 계속 남진하여 08:00경 창동방어선을 공격하자, 국군은 105mm곡사포 6문과 57mm대전차포로 사격을 하다가 각개 병사가 휴대했던 실탄이 고갈되어 3시간도 채 지나지 않은 27일 11:00경 창동방어선은 돌파되었다.

이처럼 창동방어선에 배치된 일선 전투부대들은 북한군에게 결정적인 피해를 주지도 못한 채 돌파되어 각개 또는 소



부대단위로 미아리방어선으로 후퇴하게 되었다.



선소리산타령 성북구지부 설립

1) 배경 및 경과

채병덕 총참모장은 27일 07:00에 제5사단장 이응준 소장을 미아리지구전투사령관에 임명하고 의정부지구전투사령관 유재흥 준장과 함께 미아리방어선에서 서울방어를 위해 최후의 결전을 하도록 하였다.

이에 창동방어선에서 패전 후 공포, 굶주림 및 탄약고갈과 지휘체계가 와해되어 분산 철수하는 병력을 수습하여 급조로 재편성한 병력과 후방에서 증원된 국군 제5사단 제15연대 2대대, 제20연대 1대대 및 수도경비사령부의 제8연대 2대대 등 도합 3,000여명의 병력만으로 16:00경까지 급히 미아리방어선을 형성하였다.

미아리지구의 국군 방어배치는 미아리지구전투사령부가 미아리고개를 포함하여 서측을 담당하고 의정부지구전투사령부가 고개 동측을 지휘토록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미아리지구전투사령관은 미아리고개 정상 동측 134고지(현 개운산 서북측면, 돈암 1동 주민센터 뒷산)에 제15연대 2대대(소령 안광영)를 배치하고, 길음교 북서측(현 길음시장 뒷편)에 혼성1연대(중령 이희권)를, 171고지 동남쪽일대(현 서경대학교 동남쪽)에 제20연대 1대대(소령 김한주)를, 현 삼각산동일대에 혼성3연대(중령 이상근)를 배치하였으며 현 삼양동일대에 혼성25연대(중령 김병휘)를 배치하였다.

한편 미아리고개 동쪽에서 의정부지구전투사령부 통제를 받는 부대로 제8연대 2대대(소령 고백규)가 현 경희대학교 뒷산인 143고지(천장산)를 점령하였으며, 이중 예하부대인 5중대는 청량리역 동쪽 106고지(매봉산)에 배치하여 중랑교를 동시에 통제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예비로 대대규모인 혼성16연대(대령 문용채)가 현재의 돈암초등학교에 위치하였으며, 1개 대대규모인 혼성연대는 현재 종암동 2차 아이파크 뒷산을 점령하였다. 이를 지원하는 화력은 포병학교 교도대 소속 105mm 야포 6문은 돈암동전차종점(현 성신여대역 부근)에, 57mm대전차포 6문은 미아리고개 전방에, 2문은 중랑교에 배치하였으며 81mm 박격포는 15문 중 5문을 중랑교에, 3문은 134고지 전사면(前斜面)에 배치하였다.

또한 공병대대가 민간인을 동원하여 미아리 일대의 산병호 구축을 지원하도록 하였고, 북한군 전차 접근에 대비하여 육본 전방지휘소장 강문봉(姜文奉) 대령 지휘 하에 미아리일대의 20여대 차량을 동원하여 접근로에 도로장애물로 배치하였으며, 북한군 전차 주접근로인 길음교와 중랑교에 각각 폭약을 설치하여 의명 폭파할 준비를 갖추었다.

창동방어선을 돌파한 북한군 제4사단과 제105전차여단(-)은 서울 동북의 미아리방향으로, 제3사단과 일부 전차부대는 서울을 동남쪽으로 우회하여 이촌동 방향으로 공격하였다. 북한군의 1차 공격은 27일 17:00경에 개시되었는데 제4사단과 제105전차여단(-)의 선두부대는 20여대의 전차를 앞세우고 기마부대를 후속시켜 미아리방어선 600~700m까지 육박하여 왔다. 그러나 제20연대 1대대의 집중사격을 받고 전차 1대는 격파되고 북한군은 그대로 후퇴하였다. 이때 전차인 줄로 생각했던 선두공격집단에 북한군 차량을 전차로 위장하여 전차사이에 끼어 있었는데 국군의 집중사격으로 전차로 위장된 일부 차량은 파괴되고 인원은 사살되기도 하였다.

북한군의 2차 공격은 27일 24:00 어간에 실시되었다. 당일 저녁은 비로인해 날이 일찍 어두워졌고 빗줄기가 굵어지자 국군은 이제까지 북한군의 공격성향을 볼 경우 야간에 공격을 안 할 것이라 판단하고 누적된 피로가 겹치면서 개인호 등지에서 졸기도 하였다. 그러나 23:00경이 되자 사전에 침투한 북한군 편의대(便衣隊)가 서울 시내방면에서 예광탄을 쏘아 올리기 시작하였고 24:00경 북한군은 정찰병 유도 하에 전차 40여대(실제 전차는 5~6대뿐이었고 나머지는 전차로 위장한 트럭)를 앞세워 공격을 개시하여 미아리삼거리로 접근하기 시작하였다.

이렇게 되자 제20연대 1대대장은 대대전방에 있는 목교(木橋)를 폭파토록 지시하였으나 다리중앙에 구멍이 났을 뿐 다리를 파괴하는 것은 실패하였다. 이로 인해 처음 2대의 전차는 다리를 통과하였고 3번째 전차가 통과하려할 때 다리가 붕괴되는 바람에 나머지 전차가 정지하였다. 이 상황에 맞춰 제20연대 1대대가 가용한 화력을 목교(木橋)일대에 집중하자 많은 피해를 입은 북한군은 다시 창동방면으로 후퇴하는 듯하였다.

그러나 얼마 후 3차 공격을 재개한 북한군은 종전까지 실시한 전투를 통해 확인한 국군 제20연대 1대대 진지에 전차포와 기관총사격을 가하면서, 5~6대의 전차와 기마병 및 다수의 북한군이 부서진 목교(木橋)를 통과하는데 성공하였다. 이후 제20연대 1대대지역은 다시 소강상태가 되었다.

결국 세 번째 공격으로 제20연대 1대대지역을 돌파한 북한군 전차 및 병력은 국군 혼성1연대(-) 및 제15연대 2대대가 마주보면서 담당하고 있는 길음교까지 도달하였다. 그러자 국군은 길음교를 폭파하려했으나 역시 불발로 실패하자 제15연대 2대대가 중심이 되어 북한군 전차를 막기 위해 모든 화력과 육탄공격을 20여 분간 감행하였다. 그러나 휴대한 탄약이 고갈되었을 뿐만 아니라 북한군 T-34/85전차를 파괴할만한 대전차화기가 없었으므로 결국 북한군 전차는 한 대도 파괴되지 않은 채 길음교를 통과하여 미아리고개로 진출할 수 있게 되었다.

이로 인하여 미아리고개 일대에 배치되었던 국군의 전의는 눈에 띄게 약화되어 일부는 건제를 유지한 반면 대부분 분산되어 뿔뿔이 철수하게 되었고, 28일 01:00에 북한군 전차 5~6대가 미아리방어선을 최초 돌파한 다음 돈암동에 진출한 데 이어 01:30경에는 서울 시내로 진입하였다.

한편 미아리고개 동측을 방어하던 의정부지구전투사령부 소속의 제8연대 2대대(소령 고백규)지역은 피난민속에 침투하는 북한군 편의대 30~40명을 색출해내는 것 외에 27일 야간에 별다른 접적활동이 없었다.

그러나 28일 이른 아침에 2대대장은 성동역(현 신한은행 제기역지점) 부근에서 북한군 전차 3~4대가 서울시내방면으로 이동하는 것을 관측하고 전투준비명령을 하달하는 순간 곧바로 북한군의 공격이 개시되었다.

하지만 2대대도 마찬가지로 세 차례의 파상공격에 대한 방어로 탄약이 고갈되었을 뿐만 아니라 서울 시내가 피탈 된 점을 고려하여 28일 정오 무렵 철수를 감행(敢行)하게 되었다. 또한 중랑교 부근 106고지에 배치되었던 5중대는 28일 03:30 중랑교 폭파에 성공하였으며 별다른 전투가 없이 방어하다가 대대가 철수함에 따라 함께 철수하였다.

한편 28일 02:30 총참모장의 지시에 의거하여 한강교가 폭파되었고 그로부터 1시간 30분 뒤인 04:00에 광진교 역시 폭파하였다. 이렇게 되자 서울 북쪽에 위치하던 대부분의 국군은 주요 화기, 물자, 차량 등을 포기하고 광나루, 뚝섬, 마포, 행주, 이산포나루 일대에서 한강을 도하할 수밖에 없었고 28일 새벽에 북한군 제3사단 제9연대가 전차를 앞세워 제일 먼저 서울에 들어온 이후 정오 무렵까지 북한군은 서울을 점령하는데 성공하였다.

2) 미아리지구전투의 의의

(가) 미아리지구전투는 서울을 사수하기 위해 '표면상' 최종적으로 의지했던 마지막 방어전이었다.

6·25전쟁이 발발한 후 이승만 대통령을 포함한 전쟁지도부에서 결정한 '수도 서울을 사수'하기 위해서는 의정부일대에서 반격작전에 성공하여 북한군을 38도선 이북으로 축출하여야 했다. 그러나 26일 13:00부로 의정부가 실함됨에 따라 27일 05:00경 채병덕 총참모장은 의정부지구전투사령부를 방문하여 사령관에게 "창동선에서 적을 저지격파하고 공세로 이전하라"는 구두명령을 하달한 것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서울을 사수하기 위해창동방어선에서 저지 후 반격하여 전세를 회복하고자 하였다.

하지만 창동방어선 마저 제대로 방어력 발휘를 하지 못하고 27일 11:00경에 붕괴되자, 최초 창동방어선의 '방어종심을 보강'할 목적으로 생각했던 미아리방어선에 마지막 '서울 사수'의 사활을 걸게 되었다. 이처럼 미아리지구전투는 당시 서울을 사수하기 위해서 표면적으로는 최종 의지했던 방어전이었다.

(나) 미아리지구전투는 '실질적'으로 미군이 참전할 때까지 북한군을 당분간 저지시켜야하는 지연전이었다.

총참모장은 27일 09:00경 김종필 중위를 불러 유재흥 장군에게 가서 '창동선 지탱가능 시한'을 알아오라고 지시했다. 미아리지역에 나갔던 김중위는 유장군을 만나지 못하고 자신이 목격한 전선상황과 7사단 참모장 이용문 대령으로부터 "전세가 불리하여 다음날 아침까지 창동선 유지는 곤란할 것 같다."라는 말을 듣고 돌아와 총참모장에게 보고하였다.

이에 27일 11:00 총참모장은 '육군본부 참모 및 재경부대장회의'를 긴급히 열어 육군본부의 서울 철수를 밝힘과 아울러 한강교 폭파계획을 발표하고 오전에 출발하여 13:00까지 육군본부를 시흥(보병학교)으로 철수시켰다. 그러나 미군이 참전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총참모장은 한강교 및 광진교의 폭파를 중지하게 하고 27일 18:00경 육군본부를 서울로 복귀시켰다. 이어서 미아리방어선으로 달려가 미아리지구전투사령관에게 "28일부터 B-29 중폭격기 100대가 국군을 지원하러 온다."라고 말하였다.

이상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창동방어선이 붕괴되면서 총참모장은 서울을 포기하고 육본을 시흥으로 철수시켰다가 미군 참전 소식에 맞추어 복귀는 시켰지만, 미아리방어선의 국군실상을 직접 본 상태에서 국군만으로는 북한군의 공격을 막을 수 없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았기에 미군 참전에 기대를 걸고 시간을 벌기 위해 최대한 지연하고자 하였다.

(다) 기습남침을 당하여 극도의 혼란과 전투지원(戰鬪支援) 및 전투근무지원(戰鬪勤務支援)이 매우 부족한 상황에서 미아리지구전투간 민·군 통합방위노력이 전투력발휘에 크게 기여하였다.

군(軍)이 서울을 사수할 것이라는 발표를 신뢰한 국민 대다수는 피난가지 않고 적극적으로 군사작전을 지원하였는데, 먼저 미아리방어선을 구축하면서 대전차 장애물이 제한되는 관계로 도로상에 20여대의 차량을 동원하여 장애물로 배치하였고, 진지 구축시 서북청년단[2]에서 주민을 동원하여 진지구축을 지원했다.

또한 장병급식을 위해 애국부인회에서 동원한 부녀자들이 돈암동 전차종점 광장에서 대형 가마솥 100여개를 걸어 놓고 주먹밥을 만들어 창동방어선까지 탄약운반차량과 함께 3/4톤 차량 수대로 추진을 시도하였으나 포탄 낙하로 인해 중지되어 미아리지역 방어부대위주로 추진하여 급식되었으며, 일부는 직접 애국부인회와 여학생 위문단이 미아리일대의 방어부대를 방문하여 위로 및 격려를 하였다. 또한 주먹밥을 낙오자 수집소로 추진하여 그간 굶주렸던 허기를 가까스로 달랠 수 있었다. 이처럼 창동방어선에서는 급식과 탄약보급이 안되었던 반면 미아리방어선은 이런 것들이 시민들의 지원으로 일부 해소되었다.

심지어 시민인사들은 가두 확성기방송을 통해 "국군장병 여러분 서울이 떨어지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끝까지 싸워 적을 물리쳐 주십시오."라고 방송을 반복하면서 미아리 가도(街道)에서 호소 및 격려를 하였으며 어린 여학생들도 위문품을 들고 나와 장병을 위문하기도 하였다.

(라) 미아리지구전투에 투입된 국군은 질적 및 수적으로 지극히 열세한 병력이라 효과적인 방어가 근본적으로 제한되는 전투였다.

우선 질적인 면에서 보면 육본이 의정부축선에 육본전방지휘소를 설치하고 의정부지구전투사령관과 미아리지구전투사령관을 임명하여 지역 내 혼잡된 부대들을 통합지휘토록 상부 지휘체계를 단일화 한 것은 나름대로 적절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전투를 수행해야 하는 중간 및 말단제대의 지휘체계는 제대로 유지되지 못하였다.

우선 중간제대 중 연대를 보면 제15연대 2대대와 제20연대 1대대를 제20연대장이 지휘토록 하였으나 연대본부와 예하 대대간 통신이 연결되어있지 않았고, 인접한 혼성3연대 및 혼성25연대와도 연결되지 않았다.

그리고 대대급의 경우 미아리방어선의 주요지역을 담당했던 제20연대 1대대(소령 김한주)의 상황을 보자면 대대에 소대용 무전기 몇 대만 있어서 각 중대와는 전령을 운용하거나 대대장이 직접 가서 지시 및 확인을 해야 했고, 심지어 인접지역 어디에 어떤 부대가 있는지 조차도 모르고 있었다.

또한 중대급 이하 제대를 보면 3일 동안 패전 반복, 전차에 대한 공포(恐怖), 굶주림 및 탄약부족과 지휘체계의 문란으로 전투의지를 잃고 와해된 병력을 일부 수습하여 급조 편성한 다음, 급식 후 일부 탄약만 휴대시켜 곧바로 전투에 재투입했기 때문에 전투력 발휘의 한계를 여실히 나타내었다.

즉 의정부에서 서울에 이르는 3번 도로상에 낙오자 수집소를 설치하고 일부 수집된 병력으로 부대 건제유지 없이 장교 3~4명에 병력 80~90명 단위로 임시중대를 편성하여 투입했기 때문에 병력구성, 사기와 군기 및 응집력, 지휘체계, 연락 및 협조체계, 무기와 장비 등 그 어느 것도 제대로 된 것이 없었다. 따라서 1개 연대병력이라도 최초부터 편성된 건제(建制) 1개 연대와 이처럼 와해된 병력을 급조 편성하여 재투입하는 것은 질적으로 엄청난 차이를 나타내는 것은 명약관화(明若觀火)한 일이었다.

다음으로 병력수(兵力數) 면에서 보면, 미아리지구전투에 투입된 국군은 명목상 수개의 대대 및 연대였으나 이는 각각 부대별로 수십에서 수백 명에 불과하여 총병력은 3,000명 정도로 실질적인 규모는 1개 연대 전투단에 불과하였다. 그런 반면 북한군은 직접적인 공격부대만 하더라도 전투력이 잘 유지된 제3사단 및 제4사단과 제105전차여단의 주력부대 들이었다.

(마) 미아리지구전투에서 북한군 전차는 국군의 방어선을 효과적으로 돌파하였을 뿐만 아니라 심리적 교란을 달성하여 국군의 전투력발휘가 안 되고 방어선이 붕괴되는 주된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미아리방어선에서 제20연대 1대대는 방어지역 전방의 목교(木橋)를 폭파하여 북한군 전차를 정지시킨 후 대전차화기를 발사하여 북한군 전차를 파괴하고자 하였으나, 목교(木橋) 폭파를 실패한 상태에서 보유한 대전차화기를 포함한 가용 화력을 모두 집중해도 전차를 파괴할 수 없었다.

마찬가지로 길음교 역시 폭파에 실패하였고 교량일대에 위치하고 있던 제15연대 2대대 대전차 특공대가 2.36인치 로켓발사기를 포함한 대전차화기를 발사하면서 육탄공격을 시도하였지만 육탄공격조는 기총소사에 전멸하였을 뿐 북한군 전차는 피해 없이 진지를 돌파하였다.

이처럼 6·25전쟁 초기 북한군은 242대의 T-34/85전차를 보유하고 있었지만 국군은 한 대의 전차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보유하고 있는 대전차 화기인 2.36인치로켓발사기와 57mm대전차포는 북한군 T-34/85전차를 효과적으로 파괴할 수 없었고 대전차지뢰 역시 보유하지 못했으므로 국군은 육탄공격 또는 접근로 상의 교량을 파괴하는 것 외는 북한군 T-34/85전차를 효과적으로 저지시킬 수 있는 수단이 없었다.

이로 인해 전차가 방어부대 전방에 출현하여 국군 진지를 향해 전차포탄과 기관총을 난사하면 사상자가 속출함과 동시에 전차를 막을 수 없다는 전장공포가 유발되었다. 이는 곳 적에 대한 저항력을 급격히 떨어뜨리는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방어진지가 붕괴되었고 병력들은 뿔뿔이 진지를 이탈하는 결과로 연결되었다.

다. 단장(斷腸)의 미아리고개

'단장의 미아리고개'는 6·25전쟁 초기에 있었던 미아리지구전투와는 직접적인 연계성은 적으나 북한군의 공격으로 유엔군이 낙동강방어선까지 밀렸다가 1950년 9월 15일 인천상륙작전 성공에 이어 9월 28일부로 서울을 수복하게 될 즈음 '서울시 인민위원회'와 북한군은 구속·수감 중에 있었던 많은 인사들을 강제로 북송하였는데 이때 북으로 송환하던 길이 바로 서울에서 미아리고개를 넘어 의정부방면으로 이동하는 길이었으므로 이런 과정에서 많은 아픔이 발생한 곳이다.

6·25전쟁이 일어나서 서울이 북한군에 의해 점령될 때까지 대다수 서울 시민은 피난을 가지 않고 그대로 서울에 눌러 앉아 있었는데, 북한 통치하에 있었던 약 3개월간 북한군은 국민들을 상대로 만행을 자행하였다.

북한군이 서울을 점령하고 있던 초기에는 미처 피난가지 못한 파출소 소장이나 동장(洞長) 같은 인물들을 잡아 이른바 인민재판이란 이름하에 즉결 처분(卽決處分)인 사형을 했으나, 그 후 약간 질서가 잡히고 부터는 많은 사람들을 구속·수감하게 되었다.

그중에는 한익교·방태영·김사연 등 일제하에서 중추원참의 등을 지낸 친일파도 있었지만 김규식·조소앙·안재홍·백관수·오하영·원세훈·김약수 등과 같은 거물 정치인들, 최규동(서울대학교 총장)과 현상윤(고려대학교 총장) 등과 같은 교육자와 백인제(백병원 원장)와 같은 저명한 의사, 그리고 변호사 등에서부터 구청장·구청직원·형무관·동장·동직원, 중앙 각부처 또는 각종 지방청의 간부와 직원, 대한청년단원, 일반 기업체의 중역과 회사원, 목사 등의 종교인, 신문기자, 의용군에 끌려가지 않기 위해 지하에 숨어 있던 대학생들, 심지어 고등학교 학생들까지 약 1,500명 가까운 인물들이 이때 구속·수감되었다.

당시의 성북구 관내에서만 밝혀진 숫자로 225명이나 되었는데 그중에서 안재홍·조소앙과 같은 정치인, 손진태(서울대 문리과대학장), 정규창(성균관대 교수) 등과 같은 학자, 채용묵 변호사, 홍필구 서울도자기 회사 사장 등을 포함하여 비교적 저명인사도 있었고 동사무도 직원, 청년단원 및 노동자도 섞여 있었으며 심지어 여대생을 비롯하여 20세도 안 되는 중학생도 있었다.

그런데 UN군이 인천에 상륙하고 서울을 향해서 공격해 오자 '서울시 인민위원회'와 북한군은 이렇게 구속·수감 중에 있었던 인사들을 강제로 북송하기 시작하였다. 그 때 북으로 북송해간 주된 행로는 돈암동-미아리고개-우이동-의정부를 연하는 길이었다.

이처럼 지식인과 애국지사를 포함하여 수많은 국민들이 북한으로 끌려가야만 했던 전쟁의 비극과 가족을 잃은 슬픔을 비롯한 당시의 상황을 아주 잘 표현하고 있는 '단장의 미아리고개'라는 노래는 6·25전쟁이 끝난 1956년에 반야월에 의해 작사되고 이재호에 의해 작곡되었으며 가수 이해연이 불러 오늘날에도 많은 국민의 심금을 울리는 애창가요로 불리어지고 있다.

3. 6·25전쟁 전기(前期) 성북지역 전황(戰況) 관련 호국인물 및 기념물

가. 호국인물

1) 제20연대 1대대장 소령 김한주(金漢注)

김한주 소령(육사7기 특별)은 미아리고개 서측을 방어하던 제20연대 1대대의 대대장으로서 국군이 그간 연속적인 패전을 거듭하였지만, 미아리방어선에서 대대를 통합 지휘하여 북한군의 두 차례 공격을 성공적으로 격퇴시킴으로써 국군의 사기를 크게 고무시켰다.

최초 북한군이 미아리방어선에 20여 대의 전차를 앞세우고 기마부대를 후속시켜 17:00경 공격했을 때 대대장은 105mm곡사포, 57mm대전차포, 81mm박격포, 2.36인치 로켓발사기 등을 통합 지휘하여 일제히 사격을 집중하자 북한군의 공격대열속에서 차량과 인원이 명중되어 공중으로 치솟았고 선두전차 1대가 파괴되자 북한군은 그대로 후퇴하였다. 이처럼 주간 1차 공격을 성공적으로 방어함으로써 그간 연전연패의 상황에서 그나마 국군의 사기를 고무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야간에 북한군이 5~6대의 실제 전차와 차량을 전차로 위장한 30여대의 모의전차로 전차대열을 구성하여 2차 공격을 재개하였을 때도 전방 작은 목교(木橋) 일대에 공격하던 전차대열을 멈추게 하였고, 이때를 맞추어 대대장은 주간 1차 방어시와 마찬가지로 가용한 전화력을 집중하자 전차대열에서 화염이 솟고 많은 북한군이 비명을 지르는 등 큰 타격을 받고 북한군은 다시 창동방향으로 후퇴하였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이어진 3차 공격에서는 북한군의 전차를 파괴할 수단이 없었으므로 전차가 방어정면을 통과하였다.

이처럼 제20연대 1대대장 김한주 소령은 국군이 북한군 T-34/85전차를 파괴할 수단이 없는 이유 등으로 국군이 연전연패를 했지만 대대를 효과적으로 지휘하여 나름대로 가용한 화력을 적시 적절하게 통합함으로써 북한군의 공격을 격퇴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일부 전차를 파괴하기까지 하였던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2) 제15연대 2대대 5중대장 대위 김순(金淳)

북한군은 3차 공격을 통해 제20연대 1대대 진지를 돌파한 후 제15연대 2대대 5중대가 담당하던 길음교 부근까지 진출하였다. 이때 5중대장 김순 대위 진두지휘 하에 2.36인치 로켓발사기와 57mm대전차포를 포함하여 전(全) 화력을 집중하였을 뿐만 아니라, 중대장 김순 대위가 직접 지휘한 육탄공격조가 북한군 전차에 대해 육탄공격을 감행했지만, 북한군 전차의 기관총 사격을 받아 육탄공격조는 전원 전사하고 끝내 북한군 전차를 저지하지 못하여 북한군 전차는 미아리고개 정상방향으로 통과하였다.

이는 공병 폭파조가 길음교 파괴를 실패하게 되자 더 이상 T-34/85전차를 저지 및 격퇴시킬 수단이 없었으므로 무슨 일이 있어도 북한군의 전차를 막아야하겠다는 투철한 사명감에서 김순 대위를 포함한 육탄공격조가 공격을 감행했던 것이다.

비록 북한군 전차파괴는 실패하고 안타깝게 특공조만 전원이 현장에서 전사하였지만 성패결과를 떠나 솔선수범하여 소중한 자신의 목숨을 기꺼이 내던져 살신성인(殺身成仁)의 모습을 보여준 점은 높이 평가하여야 한다.

3) 제16연대 3대대 부대대장 대위 최민섭(崔敏燮)

제16연대 3대대는 6월 25일 제2사단이 전방으로 출동할 때 제16연대의 후발대로 청주에 남아 귀대병력을 수습하다가 부대대장 최민섭 대위 인솔 하에 늦게 출발하여 27일 아침에서야 연대와 창동방어선에서 합류하였다.

하지만 창동방어선이 붕괴되자 제16연대는 와해되어 3번 도로를 따라 미아리방면으로 분산 철수하거나 일부는 1대대장 유의준(俞義濬) 중령 지휘 하에 태릉지역으로 철수하였다. 따라서 미아리 후방 돈암초등학교에 예비부대로 위치했던 혼성16연대(대령 문용채)는 창동방어선 등지에서 철수한 병력을 끌어 모아 1개 대대 미만의 혼성으로 편성된 부대였다.

한편 제16연대 3대대 부대대장 최민섭 대위는 창동방어선에서 대대가 와해된 후 미아리방어선에 도착하자마자 500여명으로 혼합 편성된 제25연대(중령 김병휘)의 일부로 먼저 편성되어 제25연대의 우단 공동묘지지역에 대대 정보관이었던 김희석 중위를 포함한 약 1개 소대의 병력과 함께 미아리방어선에 배치되었다.

야간에 북한군 전차가 미아리고개를 돌파함에 따라 인접 방어선이 와해 되어갈 즈음 김희석 중위는 최민섭 대위에게 철수를 건의했으나 최대위는 "나는 38도선을 넘어왔다. 공산당과는 불구대천(不俱戴天)의 원수이니 저놈들한테 쫓겨

날 수는 없다."라고 하며 미동도 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부대원들 모두 자리를 지켰다.

그러나 28일 아침 북한군 1개 대대가 공격을 해오자 이와 대항하여 북한군 약 1개 소대규모를 사살하는 전과를 올렸으나 중과부적상태에서 적의 치열한 사격과 포탄 낙하로 부대는 와해되어 분산되었다. 이로 인해 철수시기를 놓친 최민섭 대위는 봉일천일대에서 유격전을 벌이다가 1950년 9월 29일 서울탈환 이후 국군에 복귀하였다.

이처럼 제16연대 3대대 부대대장 최민섭 대위는 미아리방어선에서 급조로 편성한 혼성 1개 소대 규모의 부대를 지휘하면서 북한군의 공격에도 동요하지 않고 위험을 감수하면서 적과 대치하였을 뿐만 아니라 북한군 1개 소대를 사살하는 전과를 올렸다. 또한 철수과정에서 고립되자 유격전을 수행함으로써 북한군의 후방을 교란하였던 점을 높이 평가하여야 한다.

나. 호국기념물

호국기념물은 6·25전쟁 당시와 비교할 경우 현재는 지형지물(地形地物)의 변화가 현저하게 달라진 반면 관련한 조형물이나 사료가 미미하기 때문에 정확한 위치 비정(比定)이 제한되어 실제 지형지물과 연계하여 미아리지구전투의 의의를 고양하기에 제한이 되고 있어 대책강구가 필요하다.

따라서 6·25전쟁이 진행된 지역 순으로 주요 지형지물을 살펴봄으로써 향후 관련 조형물이나 표시를 하는데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1) 길음교 전투지

길음교는 미아리삼거리에서 미아리고개로 넘어가기 위해 반드시 통과해야하는 정릉천상의 교량으로 북한군의 전차를 결정적으로 저지할 수 있는 요지(要地)였으므로 이 지역을 담당하였던 제15연대 2대대가 북한군 전차를 저지하기 위해 교량 폭파를 시도하였을 뿐만 아니라 사력을 다해서 북한군 전차에 화력을 집중했던 곳이다.

교량은 당시의 위치와 동일하게 현재도 동소문로와 정릉천이 교차하는 지점에 위치하고 있으나, 교량위치를 제외하고는 현재는 위로 내부순환로가 지나가고 있고, 근접하여 길음교차로가 위치하는 등 주변 지형지물의 변화가 너무 크므로 당시 제15연대 2대대 5중대 대전차특공조가 임무를 수행했던 지점을 포함하여 일대의 부대들이 방어전투를 수행하였던 지역을 유추하기가 더더욱 어렵게 되었다.

따라서 미아리지구전투의 의의를 더욱 고양하기 위해서는 미아리지구전투에 대한 간략한 설명문과 길음교를 중심으로 당시 미아리지구에 투입된 국군과 북한군의 전투요도를 포함한 조형물을 설치할 필요가 있겠다.

2) 단장의 미아리고개

단장(斷腸)의 미아리고개는 '단장'이란 단어의 의미가 몹시 슬퍼 창자가 끊어짐을 나타내듯이 6·25전쟁과 관련하여 깊은 애환이 담겨있는 곳이다.

북한군이 38도선을 돌파하여 낙동강전선까지 진출하였던 시기에 '서울시 인민위원회'와 북한군은 많은 인사들을 구속·수감하다가 유엔군이 인천으로 상륙후 서울을 향해 진격하자 북으로 후퇴하면서 이들을 강제로 북송하였는데 이때 북으로 송환하던 길이 바로 서울에서 미아리고개를 넘어 의정부로 향하는 길이었다.

미아리고개는 당시의 위치와 동일하게 현재도 위치하고 있으며 성북구청에서 고개정상에 조성한 미아리고개공원에 '미아리고개 유래비('96년)'를 세워 미아리고개로 불리게 된 배경과 6·25전쟁시 북한군이 미아리고개를 넘어 서울로 공격한 내용뿐만 아니라 북으로 후퇴시 남한의 인사들을 강제로 압송해간 내용을 간략히 포함하고 있고, '미아리고개 공원 사적비('95년)'와 단장의 미아리고개 노래 가사를 새긴 '단장의 미아리고개 노래비('96년)'를 각각 세워 현재에 이르고 있다.

3) 애국부인회에서 주먹밥 만든 돈암동 전차(電車) 종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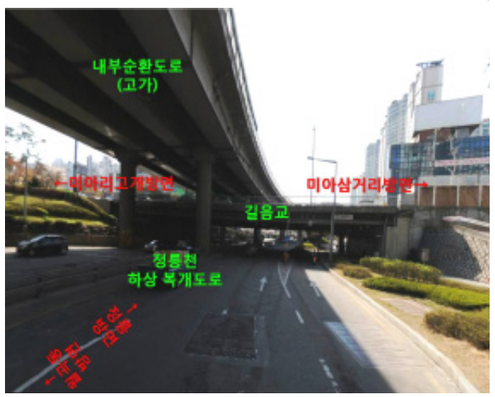
미아리지구전투가 진행되는 동안 민·군 통합방위노력이 전투력발휘에 크게 기여하였고 이중에서 장병급식을 위해 '애국부인회'에서 동원한 부녀자들이 '돈암동 전차종점 광장'에 대형 가마솥 100여개를 걸어 놓고 주먹밥을 만들어 미아리지역 방어부대까지 추진하여 방어전투간 급식문제를 해결하였음을 앞서 언급한 바 있다.

당시 돈암동 전차종점[3]은 현재 동선동 1가 114번지 일대로 일명 '돈암동 태극당앞'인데, 전차종점의 흔적으로는 조그만 비석 하나만이 있어 전차 종점임을 그나마 알리고 있으나 미아리지구전투시 '애국부인회'에서 주먹밥을 만들 던 곳이었다는 사실은 전혀 알 수가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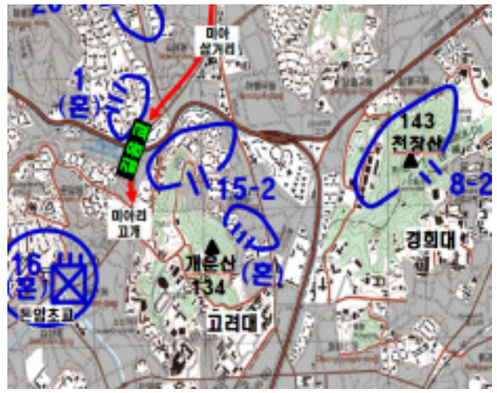
따라서 과거 전차종점이었다는 사실과 더불어 미아리지구전투간 '애국부인회'가 주먹밥을 만들어 국군장병들에게 급식하였던 내용을 포함한 조형물을 새로이 설치할 필요가 있다.

4) 기타 추가 조사가 필요한 곳

미아리지구전투가 시작된 첫날인 6월 27일 17:00경 북한군이 전차대열속에 차량을 전차로 위장하여 1차 공격을 했을 때 제20연대 1대대가 방어진지 전방 소하천상의 목교(



선소리산타령 성북구지부 설립



선소리산타령 성북구지부 설립

木橋)일대에 가용 화력을 집중하여 북한군 전차 1대를 파괴하였을 뿐만 아니라 많은 차량을 파괴하고 북한군을 사살함으로써 1차로 북한군의 공격을 격퇴하는 큰 성과를 거둔 '목교가 있던 지점'은 미아리지구전투에서 나름대로 의미가 크다.

따라서 역사적 가치를 고려하여 이곳에 조형물을 설치할 필요가 있는데, 현재 지형지물 변화가 심해서 정확한 위치 비정(比定)이 제한되므로 추가적인 연구 조사가 필요하다.[4]

또한 미아리지구전투간 육본 전방지휘소장 이었던 강문봉 대령과 의정부지구전투사령관 이었던 유재흥 장군이 임시 지휘했던 돈암경찰서 부근의 '감천여관'도 추가적인 연구 조사가 필요하다.

4. 결 론

6·25전쟁이 발발하자 '서울사수'라는 정치·전략적인 결정을 구현하기 위해 국군은 현재 서울 성북구 관할지역에 있는 미아리일대에서 마지막 결전을 시도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는 미아리방어선이 붕괴되어 결국은 서울이 북한군의 수중에 들어갔듯이 미아리지구전투는 서울방어와 직결되어있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6·25전쟁초기에 있었던 미아리지구전투를 중심으로 전황을 간략히 살펴보고 이것이 갖는 의의를 알아보고자 했으며, 미아리지구전투에서 나타난 애국애



선소리산타령 성북구지부 설립

족정신을 높이 고양하기 위해 관련된 호국인물 및 기념물에 대해 성북구에서 추진해야할 선양(宣揚) 방향에 대해 제언하고자 했다.

먼저 서울에 이르는 마지막 관문이었던 미아리지구전투를 분석한 결과 미아리지구전투의 의의를 대략 5가지로 정리할 수 있었다.

첫째, 미아리방어선이 돌파되면 곧바로 북한군이 서울로



선소리산타령 성북구지부 설립

진입할 수 있기 때문에 미아리지구전투는 서울을 사수하기 위해 '표면적'으로는 최종 의지했던 마지막 방어전이었다. 이는 당시 상황을 보면 잘 알 수 있는데, 27일 11:00경에 창동방어선 붕괴에 이어 28일 01:00 미아리방어선이 돌파되자 북한군 전차가 01:30경 서울 시내로 진입한 것은 이를 잘 말해주고 있다.

둘째, 미아리지구전투는 '실질적'으로 미군이 참전할 때까지 북한군을 일정기간 저지시켜야하는 일시적인 지연전이었다는 점이다. 앞서 '표면적'으로는 서울을 사수하기 위해 최종적으로 방어한 전투로 설명하였으나, 당시 육군본부의 서울 철수를 비밀로 하고 외부로 공개하지는 않았지만, 창동방어선이 붕괴되자 미아리방어선에서 방어하고 있는 국군실상을 직접 본 총참모장은 내면적으로는 국군만으로 북한군의 공격을 막을 수 없다고 판단하고 육본을 시흥으로 철수시키기도 하였다. 그러나 미군이 참전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미군 참전에 기대를 걸고 시간을 벌기 위해 최대한 지연하고자 하였다.

셋째, 기습남침을 당하여 극도의 혼란과 전투지원 및 전투근무지원이 매우 부족한 상황에서 미아리지구전투간 민□군 통합방위작전이 나름대로 잘 수행되었다는 점이다. 먼저 전투준비간 민간차량을 동원하여 도로장애물로 활용하였고, 주민을 동원하여 진지를 구축하였을 뿐만 아니라 전투수행간에도 애국부인회는 주먹밥을 만들어 추진급식을 함으로써 식사문제를 해결하는 등 민□군 통합방위노력이 전투력 발휘에 크게 기여하였다.

넷째, 미아리지구전투에 투입된 국군은 질적 및 수적으로 지극히 열세한 병력이라 효과적인 방어가 근본적으로 제한되는 전투였다. 질적인 면에서 보면 육본전방지휘소를 설치하고 의정부지구전투사령관과 미아리지구전투사령관을 임명하여 통합지휘토록 한 조치는 나름대로 적절하였지만, 실질적으로 전투를 수행해야 하는 연대급 이하 중간 및 말단제대의 지휘통제, 통신 및 전투지원체계는 갖추어지지 못하여 통합된 전투력 발휘가 근본적으로 제한되었다.



선소리산타령 성북구지부 설립


선소리산타령 성북구지부 설립

또한 수적인 면에서 보더라도 미아리지구전투에 투입된 국군 병력은 약 3,000명 정도로 1개 연대전투단 규모에 불과한 반면, 북한군은 전투력이 잘 유지된 제3사단 및 제4사단과 제105전차여단이었으므로 수적으로도 비교가 안 될 정도였다.

마지막 다섯째는 미아리지구전투에서 북한군 전차는 국군의 방어선을 효과적으로 돌파하였을 뿐만 아니라 심리적 교란을 달성하여 국군의 전투력발휘가 안 되고 방어선이 붕괴되는 주된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당시 국군은 북한군 전차를 파괴할 화기가 없었기 때문에 전차에 대한 전장공포가 유발되었고 이는 곳 적에 대한 저항력을 급격히 떨어뜨리는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방어진지가 붕괴되었고 병력들은 뿔뿔이 진지를 이탈하는 결과로 연결되었다.

다음으로 미아리지구전투와 관련한 호국인물 및 기념물을 살펴보고 성북구에서 추진 할 수 있는 선양(宣揚) 방안을 도출하였다.

먼저 호국인물로는 우선 제20연대 1대대장 김한주 소령을 들을 수 있다. 국군이 연전연패한 상황에서 미아리방어선에서 대대를 효과적으로 지휘함으로써 북한군의 공격을 한 때 격퇴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일부 북한군 전차를 파괴하기까지 하였던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선양하야 할 것이다.

다음 두 번째 제15연대 2대대 5중대장 김순 대위는 길음교 파괴가 실패되자 더 이상 T-34/85전차를 저지 및 격퇴시킬 수단이 없었으므로 직접 육탄공격조에 포함되어 북한군 전차를 대상으로 육탄공격을 감행했던 점은 성패결과를 떠나 소중한 자신의 목숨을 기꺼이 내던져 살신성인(殺身成仁)의 모습을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되고 선양되어야 한다. 아울러 아직까지 불명확한 당시 5중대장 이름이 무엇인지에 대한 추가 연구 및 조사가 필요하다.

세 번째 거론할 수 있는 호국인물은 제16연대 3대대 부대대장 최민섭 대위이다. 최대위는 미아리방어선에서 급조로 편성한 혼성 1개 소대 규모의 부대를 지휘하면서 북한군의 공격에도 동요하지 않고 위협을 감수하면서 적과 대치하였을 뿐만 아니라 북한군 1개 소대를 사살하는 전과를 올렸다. 또한 철수과정에서 고립되자 유격전을 수행함으로써 북한군의 후방을 교란하였던 점은 높이 평가하여야 한다.

한편 호국 관련 기념물을 확인한 결과 대부분 현존하는 기념물이 없는바 숭고한 호국정신을 후대에 알리고 길이 보전하기 위해서는 관련된 조형물 조성이 필요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우선 미아리지구전투의 의의를 더욱 고양하기 위해서는 핵심 격전지인 길음교전투지에 조형물을 새로 조성할 필요가 있는데, 먼저 미아리지구전투에 대한 간략한 설명문과 길음교를 중심으로 당시 미아리지구에 투입된 국군과 북한군의 전투요도를 포함한 조형물을 새로 설치하는 방안에 대해 성북구차원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단장의 미아리고개와 관련하여 성북구청에서 고개정상에 조성한 미아리고개공원내 '미아리고개 유래비' 및 '미아리고개공원 사적비'와 단장의 미아리고개 노래 가사를 새긴 '단장의 미아리고개 노래비'를 효과적으로 관리 및 유지하기 위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본다.

그리고 미아리지구전투간 장병들에게 주먹밥을 급식하기 위해 애국부인회가 중심이 되어 주먹밥을 만들었던 돈암동 전차종점은 현재 전차종점 관련 작은 조형물이 있으나 이를 대체하여 전차종점내용과 미아리전투간 주먹밥을 만들었던 내용을 같이 포함한 새로운 조형물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이외에도 제20연대 1대대가 최초 북한군 전차를 격파한 방어진지 전방 하천상의 목교(木橋)일대와 돈암경찰서 부근의 '감천여관'도 추가적인 연구 조사를 통해 적절한 조형물 설치가 필요한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Fin.*

***각주**

1) 이 글은 2013년 6월 21일에 열린 학술대회 '근현대 성북지역의 독립정신과 호국활동'에 발표한 논문을 축약한 것입니다.

2)서북청년단(西北靑年團)은 해방 후 미군정하에서 이북출신 청년회를 중심으로 통합 결성된 보수운동단체로 6·25전쟁 무렵까지 존속했다.

3) 성북구지역의 대중교통은 '경성시내버스'와 종로4가에서 혜화동로터리까지 다녔던 '전차(電車)'에 의존하였으나 1941년 7월 12일부로 전차운행구간을 돈암동네거리까지 연장하면서 돈암동에 전차종점이 들어서게 되었다. 이 전차는 1968년 11월 운행을 중단할 때까지 성북지역의 중요한 교통수단이었다.

4)대략적으로 현재 길음동 '이마트'일대를 중심으로 북으로 '숭인치안센터'에서 남으로 '미아사거리'에 이르는 어간으로 추정된다.

미아리고개를 소재로 한 뮤지컬
‘약속’을 만든 사람들

동구여자중학교 뮤지컬 동아리 ‘FAME’의 청소년들. 동구여자중학교의 대표 문화예술 동아리 ‘FAME’은 지난 11월29일 ‘약속’이라는 뮤지컬을 무대에 올렸다. 이 문화프로젝트는 동구여자중학교 뮤지컬동아리 ‘FAME’과 성북문화원, 예술교육연구소 ‘생명나무’가 함께하는 2013년 청소년지역문화프로그램 ‘앞으로 빛난 나날’ 사업으로 우리 지역의 향토문화재를 소재로 청소년들의 참신한 문화콘텐츠를 발굴하고 그 창작활동을 통하여 내 고장에 대한 자부심과 애향심을 고취시키고자 만들어진 프로젝트이다.



선소리산타령 성북구지부 설립

한국전쟁의 아픔을 겪으면서 눈물로 바뀐 미아리고개 청소년들의 시선을 통해 뮤지컬 ‘약속’으로 재탄생

이들은 이번 뮤지컬을 위해 지난 5월7일부터 11월29일까지, 반 년 남짓한 시간을 함께 해 왔다. 오래 기간 뮤지컬을 준비하는 것에 어려움은 없었는지, 혹은 고충 같은 것이 있었는지 궁금했다.

“연습 날마다 한 두건씩 에피소드가 생겨서 지루하지 않고 재밌게 연습 할 수 있었습니다.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라면 정님이 의 대사 중 ‘징용 가셨던 엄마, 아빠 모두 돌아가셨다는 사망확인 통지서였어.’ 라는 부분을 ‘모두 도망가셨다는 사망확인 통지서였어.’ 라고 대사실수를 해서 Fame친구들의 웃음을 자아냈었죠.... 고충이 있었다면 몰입 부분에서 조금 어려웠어요. 각자 배역에 있어서 그 역할의 감정과 행동 하나하나 까지 분석하고 연기해야 한다는 점에서 조금 힘들었어요.“

뮤지컬을 펼치기까지의 소소한 에피소드가 가득한 FAME 친구들의 말이다.

이번 뮤지컬은 미아리고개라는 특정 공간을 작품의 배경으로 삼아 있다. 뮤지컬을 본 관객들 중에는 눈물을 훔치는 친구들이 보였다.

“사실 ‘이산’이라는 아픔과 ‘6·25’라는 민족의 비극을 전후 세대 그것도 63년이 지난 지금의 세대 특히 여중학교 학생들이 표현해내기란 참 힘든 주제였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하면 최대한 우리 학생들이 이해하기 쉽게 접근하고 표현 할 수 있게 하는 가 하는 것이 가장 어려웠던 점이였습니다. 실제로 연습 과정에서 학생들이 전쟁의 공포와 두려움 그리고 이산가족의 비극을 표현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토로 했다”고 생명나무 함형식 선생님은 말한다.



선소리산타령 성북구지부 설립



선소리산타령 성북구지부 설립



선소리산타령 성북구지부 설립

약속은 희망·배움이다

뮤지컬은 남북한의 관계에 매번 기대와 실망이 교차하는 이산가족들. 그 중 한사람인 김정순 할머니가 대한적십자로부터 또 한 번 이사 가족 신청에서 떨어졌다는 통보를 받고 실망하는 장면부터 시작한다. 미아리고개, 바로 김정순 할머니가 살았던 성북구에 위치한 미아리고개에서 일제 강점기에는 아빠, 엄마와 헤어졌으며 그리고 언니 정님과도 그곳에서 헤어지게 된다.

"아무래도 가장 기억 남는 장면은 주인공인 두 자매가 '미아리 고개'에서 헤어지는 장면이었던 것 같고 가장 마음에 남는 대사라 하면 주인공 정님이가 동생 정순에게 '아빠, 얼굴 기억하냐고 물으며, 자기는 먹고 사는 일에 치여서 자꾸 엄마, 아빠의 얼굴이 희미해져 간다'고 고백했던 말이 참 가슴 먹먹하게 다가왔던 대사였다"고 함형식 선생님은 전한다.

또한 "이 작품을 통해서 다시 한 번 가족의 소중함과 어떤 일이 있어도 민족의 비극이 되풀이 되는 역사가 이 땅에는 없어야 한다는 생각과 함께 더 나아가 우리 민족의 희미해진 통일의 염원을 생각해 볼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라고 함형식 선생님은 곱씹으며 말한다.

'약속' 뮤지컬 그 후...

"무대가 큰 무대인만큼, 학년이 높아질수록 뮤지컬 동아리에 대한 애착과 책임감이 많이 커졌다." FAME 친구들은 입을 모았다.

실제 뮤지컬에 참여했던 학생들도 처음에는 서로가 친한 듯 보였지만 항상 활동을 시작해보면 처음엔 서로가 참 어색해합니다. 또한 개인주의 경향도 보였고요. 하지만 지금은 '나'보다는 '우리'라는 단어와 행동이 학생들에게 확연하게 보입니다. 또한 학교생활도 자심감 있고 긍정적인 태도로 반에서도 좋은 영향력을 끼친다고 담임선생님들이 전합니다.

"FAME은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 연습하여 멋진 공연을 올릴 것이고, 또한 저희 담당 강온선생님의 바람대로 뮤지컬 동아리를 전통처럼 이어 갈 것입니다.

동구여자중학교의 자랑거리인 만큼 책임감을 갖고 열정을 쏟아 부어 영원히 기억에 남을 수 있는 FAME이 되겠습니다." 뮤지컬에 대한 열정과 사랑이 그대로 느껴졌다.

"앞으로 이 나라를 이끌어 가야할 주인공인 우리 아이들이 계속적으로 이런 창조적인 동아리활동을 통하여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될 수 있도록 이제는 학교와 지역기관이 연계하여 인적, 물적 자원을 공유하고 프로그램을 발전시켜 나가는 협력사업이 지속적으로 지원되어야 한다"고 FAME의 담당교사 동구여자중학교 임강온 선생님이 마지막으로 전했다.

우리 청소년들이 지역문화에 대하여 관심을 갖고 스토리텔링하여 남다른 애정과 사랑이 담긴 뮤지컬이었기에 무대와 관객으로 전한 그들의 몸짓이 우리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뮤지컬로 남지 않았을까? *Fin.*



선소리산타령 성북구지부 설립

03.
문화 예술인 초대석_

성북동은 남서쪽으로 서울 한양도성이 지나고, 북서쪽으로는 구준봉 능선으로 이어져 한양도성 곡성이 있는 275m 고지에 이르는 산세로 이루어져 있다. 동북쪽으로는 팔각정 앞에서 북악산길을 경계로 성북구 정릉동과 경계를 이루며, 동남방향으로 돈암동·동소문동·삼선동과 경계를 이룬다.



이건자 선생님과의 대화_

2005년부터 성북문화원 문화강좌 '선소리산타령'반을 개설해 지도하고 있는 이건자 선생은 중요무형문화재 제19호 선소리산타령 기능보유자 황용주 선생으로부터 소리를 배웠다. 2003년부터 성북구에 국악전수소를 개설하여 일반인들에게 우리 소리를 가르치고 알려왔으며 2012년 선소리산타령 전수교육조교로 선정되었다. 2013년 11월 5일 이건자 선생을 만나 지금까지 우리 소리를 배우고 가르치면서 살아온 이야기들과 앞으로의 꿈에 대해서 들어보았다.



취재_ **공유(가삼기획)**
사진_ **소지섭(성북문화원 학예사)**



1



2

1_경복궁민속박물관 발표공연
2_단국대학교 발표공연

이건자_

중요무형문화재 제19호
선소리산타령 전수교육조교
성북문화원 선소리산타령반 강사

Q&A

Q : *일반 사람들은 선소리산타령이라는 게 뭔지를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은 거 같습니다. 선소리산타령에 대해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A : 선소리산타령은 한 명 한 명 부르는 소리도 있겠지만, 여러 소리꾼들이 서서 소고를 들고 무용, 간단한 율동을 하면서 각 지방의 명승지 가사가 다 들어가 있는 산타령입니다. 옛날에는 서서 하는 소리, 좌창(坐唱)하는 소리로 나눠져 있었기 때문에 선소리 산타령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행사나 놀이마당 할 때 흥겹게 여러분들이 같이 놀 수 있는, 서서 율동하면서 재미있게 하는 소리입니다.

Q : *선소리산타령은 조선시대부터 지금까지 잘 계승이 되고 있는데요. 그러면 다른 민요나 타령하고 비교해서 선소리산타령이 가지고 있는 매력은 어떤 건가요?*

A : 네, 그렇죠. 다른 경기 민요는 흥겹고 가냘픈 소리로 예쁘게 옥구슬 굴러가는 것처럼 그냥 리듬을 높낮이 없이 해요. 우리 선소리 산타령은 아주 씩씩해요. 높낮이가 강하고 발성도 있고, 받침목도 많이 들어가고 정말 혼자서 하기 힘든 소리죠. 혼자서 소리 힘을 높이는 것은 힘들고 여러 명이서 불러야 상쾌하고 소리가 커요.

Q : *그러면 선생님께서 선소리산타령을 배우게 된 계기는 뭔가요?*

A : 제가 어렸을 때부터 소질이 있었어요. 소리만 나오면 좋았어요. 하여튼 아프다가도 음악 소리만 나오면 약 먹은 듯이 안 아프거든요. 아버님께서 경기민요를 잘하시거든요.

"선소리산타령은 조선시대 초기부터 전래되어 내려온 우리나라 민간음악이다. 소고를 들고 박자를 치며 남녀 10명 내외가 서서 함께 부르는 것이 특징이다. 서서 부르는 노래라 하여 '선소리'라 했고, 팔도 유명산을 모두 가사에 표현하였으므로 '산타령'이라 한다. 선소리산타령은 대개 꿋꿋한 목소리로 힘차게 질러내는 높은 음이 많이 쓰인다. 그리고 발성 소리 자체가 박진감이 넘쳐흐르면서 씩씩하고 멋을 풍겨주기 때문에 흥을 한층 돋구어주는 특징을 갖고 있다. 1968년 중요무형문화재 제19호로 지정되었다.

참고로 올해 개설 9년째를 맞이한 성북문화원 선소리산타령반은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12시에 강습을 실시하고 있으며, 2012년 서울시문화원연합회 주관하는 「2012 서울문화가족 국악 및 무용경연대회」 국악 부문 대상을 타는 등 차츰 그 실력을 인정받고 있다."

아버님 때부터 흥얼흥얼 따라하고 돌아다니다가, 18살 무렵에 전문가에게 배우려고 했는데 안 되었어요. 28살 정도까지 경기민요는 전문가 선생님한테 배운 건 아니고, 아버님하고 같이 따라다니면서 부르다가, 소리를 배워야되겠다하고 생각했을 때, 우연치 않게 판소리 신영희 선생님을 만나서 선생님하고 몇 년 같이 생활하면서 배웠어요.

그때만해도 소리는, 좋아서 파고드는 사람만 배웠어요. 우리 전통 국악이 살아야 되는데 거기서 거기잖아요. 변함도 없고. 그래서 선생님에게 판소리를 배우다가 저하고 맞는 게 아닌 것 같아서 몇 년 같이 있다가 어느 계기가 되어서 윤평하 선생님, 그 때 전수조교로 계셨을 때인데 그 선생님하고 인연이 어떻게 돼서 그곳에 가서 남자 선생님께 배우게 되었죠.

그런데 그때 당시 남자 소리다보니까 여자 선생님에게 갈까 망설였죠. 그런데 여자 선생님한테 찾아가려고 몇 번 했다가 안 되고 다시 선소리산타령을 배우기로 했어요. 왜냐면 소리가 너무 단단하고 씩씩하고 상쾌하고 흥겹고 또 여러 명이 같이 어울려서 부를 수 있으니까 혼자 하는 것보다 이게 좋겠구나 하고 배웠어요. 그렇게 5년 동안 배우다가 본격적으로 전수를 받으려고 황용주 선생님을 찾아뵙고 '지금부터 입문하겠습니다'라고 했죠. 그때가 1986년이에요.

Q : 그러면 보통 무형문화재 특히 선소리산타령 제19호 전수, 이수, 전수조교까지 하시면 어느 정도 경지까지 올라오신 건데, 이런 무형문화재라고 하면 엄격한 도제식 훈련과 교육이 있었을 거 같아요. 선소리산타령을 배우면서 여러 가지 힘들었던 기억이나 에피소드, 추억이 많았을 것 같은데 그 이야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A : 네, 많지요. 제가 조교까지 올라온 단계에서 아무것도 몰랐을 때는 소리라는 것은 전부 '내 것이구나'. 내가 소리를 좋아하다 보니까 전부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소리를 어렵지 않게 생각하고 도전했어요. 그런데 어느날 그게 아닌 거예요. 대회를 나갔는데 내가 제일 잘하는 줄 알았는데, 대회마다 떨어지는 거죠. '아 이게 아니구나, 공명이 들어가야 되는구나, 그 때부터 이제부터 시작이야' 하면서 이제 대회가서 떨어지면 왜 떨어졌는지 파악해야 되고 그러다보니 세월이 언제 가는지 모르게 간 것 같아요.

처음의 소리가 유치원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우리 학교 시절하고 똑같아요. 2, 3년 배우다가 우연치 않게 만난 사람이 너 소리 늘었어, 또 2, 3년 안 보다가 만나면 '너 소리 많이 늘었구나' 또 2, 3년 지나서 '이제 소리가 제법 되는구나' 이렇게 말할 때마다 '이거구나'해서 다시 시작했어요.

힘든 건 욕심이 과해서 그랬던 거죠. 선생님들이 시금새 하시는 것을 들을 때는 나도 될 거 같은데 막상 내가 하면 아닌 거예요. 돌리고 꺾고, 시금새나 숨 쉬는 자리를 정확히 알아야하는데 모르니까 아무데서나 쉬고, 새고, 돌리는데 시금새가 안되니까 엉뚱하게 가죠. 예쁘게 돌려야 되는데 목이 잘 안 돌아가니까 꺾 돌리고, 녹음을 해서 들어보면 내가 소리를 안해야 되나 이랬는데, 1년 동안은 느는 것 같지도 않고 세월이 3년, 3년, 3년, 3년 이렇게 지나다보니까, 사람들이나 어르신들이 보시고 '노래 늘었다' 하는 그 소리에 빠졌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오게 되었죠.

제일 힘들었던 것은 연륜이 돼서 어느 정도 경지가 되어야 따라가는데, 1년 되어서 10년된 그 소리를 하려고 하니 마음뿐이죠. 안 될 때는 포기를 하고 싶었어요.

또 경창 대회를 나가서 욕심이 과해서 내가 일등만 할 줄 알고 갔죠. 그런데 가서 예선도 못 붙고 떨어졌어요. 그때는 하기 싫어요. 내 마음에 안쳐줬을 때, 그때 그만하고 싶다고 한 몇 번을 그랬어요. 그런데 그럴 때 '내가 뭐 때문에 여기서 그만둬야 하지?' 하면서 선생님을 찾아갔죠. "선생님 제가 대회를 나갔는데 제가 뭐가 잘 못 되었죠? 받침목이 안 되고 끌을목이 안돼요"라고 말씀을 드렸죠. 받침목, 끌을목, 건널목 그거를 다 찾아서 선생님한테 여쭤서 될 때 까지 몇 시간씩 연습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장려상부터 해서 우수상, 최우수상, 장원, 대상 이렇게 올라갔어요.

어느날 대상을 타고 허무해서 한 달을 걸어 다녔어요. '이게 뭐 길래' 생각하면서요. 또 내 후배들, 나에게 배우는 사람들이 똑같이 이런 심정이지 않을까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까지 노래를 좋아하는 사람들한테 이럴 때가 있으니까 요렇게 하면 고비가 넘어간다. 이럴 때는 어느 정도 되면 싫증을 부리게 되니까 요렇게 넘겨라, 이렇게 이해를 시켜주고 있어요.

제일 좋았을 때는 대상을 탔을 때죠. 대상은 50명이 경합을 해서 한 명을 뽑아요. 49명이 명창부에 들어오면 그 중 여섯 명을 뽑아요. 거기서 또 한 사람 대상을 뽑잖아요. 그 때 긴장을 해서 손가락이 안 펴지더라고요. 그럴 때가 제일 좋았고, 내가 어려운 소리를 배워서 대상을 탔을 때 우리 선생님이 생각났죠.

Q : 성북문화원과의 인연은 어떤 계기로 시작되었는지 알고 싶습니다.

A : 제가 예전엔 강남에 살았어요. 그때 선생님께 '제가 학원을 어떤 쪽에다 낼까요?'라고 여쭈니까 '성북구에다가 내지' 라고 하셔서 성북구에 자리를 잡으려고 그때 동아리 반을 왔었죠. 내가 살고 있는 데는 강남이었는데 내가 일주일에 한 번씩 동아리 반을 만들어서 여기와 몇 년 하다 보니까 학원을 하게 되었고 그래서 자리를 슬슬 잡아갔죠. 그때가 2005년도였죠.

학원을 하면서 그때 '소리를 활성화를 시켜야 되는구나, 우리 소리를 내가 학원생들한테만 가르치면 안 되고, 성북구에 어디를 찾아가서 가르쳐야지' 생각하다가 문화원을 찾아왔어요. 제가 여기서 소리를 지도하고 싶다고 하니, 경기민요 선생님이 계셔서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경기민요하고 선소리산타령하고 호가 다르니까, 경기민요는 놔두고 선소리산타령반을 만들어주십시오. 제가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때 계기가 되어서 선소리산타령반을 시작하게 되었죠. 그리고 1년 있다가 성북구로 아예 이사를 왔어요.

Q : 문화원에서 선소리산타령을 가르치면서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다면요?

A : 서울시 25개구 문화원들 대회가 있잖아요. 이왕 도전한 거 대회를 좀 나가보자 그래서 시간 날 때마다 가르쳐서 대회를 나갔어요. 당연히 처음에는 잘 못했는데 한두 번, 몇 년 나가다 보니까 이제 조금 프로 맛이 나니까, 장려상부터 받았어요. 그래도 처음 반이 갖추어질 동안만 안 나갔지 계속 나갔어요. 왜냐면 성북문화원 이름을 내야 되니까, 근데 갈 때마다 회원들이 단합이 잘 돼서 우수상은 안 놓치고 하나씩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기서 자리를 잡고 있는 한 대상 한 번 받아봐야지 그 목적으로, 그게 꿈이었거든요. 그래서 2012년도 그때 우리 사무국장님 처음 뵐 때 대상을 받았지요. 그때 저의 꿈이 그거였거든요.

이제 제가 성북구에서 이루고 싶은 꿈이 딱 두 가지가 있어요. 1년에 한 번씩 하는 국악제하고 경창대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내가 차츰차츰 관계자들도 만나고 해서 그런 꿈을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 나갈 것 같습니다. 그 때까지 우리 사무국장님 나랑 손잡고 해야죠.

Q : 그러면 우리 전통 문화를 지켜간다는 것은 선소리산타령뿐만 아니라 우리 고유의 전통의 혼이 담긴 이런 문화를 지켜나간다면 오늘날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지금 이렇게 21세기 살아가는 현대인의 삶 속에서 전통문화를 지켜간다는 의미에 대해서 말씀해주세요.

A : '나만 소리를 좋아하는 건가? 괜히 나만 흥이 겨워서 이러는 건가?' 어떤 날은 이럴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처음 소리 배울 때나 지금 현재까지도 가요나 팝이나 외국에서 들어오는 소리만 열성이에요. 국악을 지도하러 가보면 20명 정도인데, 가요반을 가보면 100명, 60명, 80명이래요. 거기서 허무감을 너무 느끼죠. 어떻게 우리 소리를 활성화시킬지 이것저것 다 연구를 해서 하지만 그것도 안 채워질 때 허무하죠.



2003.05.24 선소리산타령 성북구지부 설립

가나다라마바사 아자차타카파하
안녕하세요 저는 윤상현이에염



2003.11.08 남산골한옥마을 경복궁 지경다지기 놀이

그래도 요즘에는 활성화가 많이 돼서 학교 쪽으로 초등학생이나 중학교나 고등학교, 대학교에서 입문할 수도 있어요. 저도 중학교, 고등학교에도 시간강사로 나가봤지만 우리 아이들한테는 안먹히는 소리죠. 할머니 소리를 하고 있냐고 그랬죠. 근데 요즘에는 활성화가 돼서 반도 만들어졌고 학원에는 6살부터 시작하는 애들도 있어요.

지금 우리 소리를 활성화 시키기 위한 마음에서 아이들도 가르치고 있는데, 모르겠어요. 제가 하는 날까지는 열심히 해서 정말 우리 아리랑이라도 전 국민이 우리 소리를 좋아할 때까지 하고 싶어요.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고요. 제가 1년에 한 번씩 중국, 미국으로 공연을 가요. 자체 공연을 가면 우리 입양된 한국 아이들을 지도하죠. 아리랑 같은 거 가르쳐 주죠. 운동장에 모아놓고 꽹과리 치고 북치고. 그래서 일 년에 한 번씩은 꼭 가요. 제가 앞으로 더 좋아지고 어느 계기가 될 때 외국에 우리 소리 가르치는 집을 하나 설립하는 꿈 그런 꿈도 있어요.

Q : 아까 국악제나 경창대회도 말씀하셨는데, 지자체나 관계기관, 단체들에 어떤 바람이 있고 어떤 노력을 해주었으면 하는지 선생님의 개인적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A : 그러니까 우리 성북구청에서 밀어주신다면 한 달에 한 번 장소를 만들어서 주기적으로 공연을 꼭 하는 것이 제 바람이죠. 예전에 제가 한 번 구청에 건의를 드렸어요. 우리 성북구에 국악인들이 많이 있지 않느냐 그러면 아리랑축제나 무슨 벚꽃축제 같은 것은 일단 국악인들을 초대해서 가요보다도 먼저 공연하자고 그랬죠. 구청장님께도 제가 말씀드렸죠. 그것 좀 성사시켜 달라. 근데 아직까지 제가 부족해서 그런지 안됐고요.

Q : 인터뷰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이건자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꿈들 꼭 저희 문화원에 계실 때 이루어지면 좋겠고요. 저희도 선생님 활동 열심히 돕겠습니다. 오늘 인터뷰 감사합니다. ***Fin.***



2003.11.08 남산골한옥마을 경복궁 지경다지기 놀이

손영목 작가와의 오후_

손영목_

가나다라마바사
아자차타카파하나아

01.02_가나다라마바사
아자차나다ㅏ 아자다아

01.02_가나다라마바사
아자차나다ㅏ 아자다아
아저오도 어자어

죽는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점 부끄럼이 없기를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 해야만했다.

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세상 모든것들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의 길을

걸어가야겠다.

오늘도 바람이 별에
스치운다.

죽는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점 부끄럼이 없기를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 해야만했다.

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세상 모든것들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의 길을__



손영목 작가와의 인터뷰중

Q&A

Q : 사회적 격변기를 맞고 있던 혼란스러운 시대에 작가가 되어야겠다고 결심한 어떤 계기가 있으셨나요?

A :나를 소설가가 되게 한 사람은 춘원 이광수와 조나단 스위프트입니다. 초등학교 2,3학년 때쯤 시골고향(경남 거제)에서 혼자 집을 지키고 있다가, 앞뒤가 몇 장씩 떨어져 나간 무슨 이야기책을 내용도 잘 모른 채 몇 시간 동안 머리가 뻐개질 정도로 읽고는 '야, 이런 세계도 있었나.' 하고 매료되었지요. 여덟 살 위인 누나가 어디선가 빌려다 읽는 책인 모양이었는데, 아주 훨씬 훗날 춘원의『무정』을 읽고서야 그때 읽은 책이 바로 이 소설이었음을 비로소 알았지요. 그러다 초등학교 6학년 때 도시(마산)로 이사하는 바람에 전학했는데, 학교 다녀오다가 서점에서 주인의 눈치를 보아가며 정신없이 독파해버린『걸리버 여행기』의 감흥은 어린 내게 충격 그 이상이었습니다. 나는 워낙 지적 호기심이 많아서, 그러고도 서예가·화가·만화가 등으로 진로를 모색하다가, '그래, 소설가가 되자' 하고 아주 결정해버린 게 중학교 2학년 때였지요. 데뷔는 1974년 한국일보 신춘문예 당선으로, 작품은 단편소설「판님」이었습니다.

Q : 1974년 신춘문예 당선 이후, 꾸준하게 작품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작품의 구상이나 영감은 주로 어떻게 얻으시는지?

A : 자나깨나 소설 생각이 머리에서 떠나지 않다 보니 내겐 작품의 소재가 되지 않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 중에도 남들과 다른 나만의 독특한 세계가 있는데, 밤에 자다가도 작품이 되는 꿈을 간혹 꿉니다. 일종의 기벽이랄까. 현대문학상 수상작인 단편소설「밀랍인형들의 집」은 완전히 꿈을 형상화한 작품이지요. 비슷한 작품이 몇 편 있습니다. 이런 정도이다 보니 밤에 잘 때 머리맡에 메모지와 라이트펜을 비치해놓는 게 버릇이 되었습니다.

Q : 작가님께선 사회적 메시지를 담은 작품을 많이 쓰시는 데요, 무거운 주제를 다루는 만큼 고충도 따랐을 텐데요. 작가로 살면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장애물을 만났던 적은 어떤 것일까요?

A : 가장 힘든 것은 생활고였습니다. 1960년대 70년대는 출판업 황금기였지만, 이상하게도 작가들은 대개 찢어지게 가난했습니다. 재능이 우수한 작가들도 생활고 때문에 직장생활(주로 교사직)로 밥벌이하는 길을 택한 바람에 이후 글을 못 쓰게 된 경우를 많이 봤지요. 안타까운 일이지요. 나는 직장생활과 작가생활을 비교적 요령 있게 잘 병행해온 케이스에 속한다고 할까요. 그렇더라도 근본적인 생활고는 여전했지요. 그래서 식구들 고생께나 시켰고, 그 점에서는 항상 빚진 느낌입니다.

죽는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점 부끄럼이 없기를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 해야만했다.

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세상 모든것들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의 길을__

죽는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점 부끄럼이 없기를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 해야만했다.

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세상 모든것들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의 길을__

죽는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점 부끄럼이 없기를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 해야만했다.

_

Q : 오랜 시간 동안 집필해 온 작가님의 경험으로 볼 때, 글을 쓰는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덕목은 무엇인가요?

A : 문학하는 사람에게 가장 필요하다기보다도 중요한 덕목은 성실성과 상상력이라고 생각해요. 인간관계와 생활과 일에 관련해서 성실하지 않으면 곤란하듯이, 문학도 성실하지 않고서는 성공할 수 없습니다. 이 '문학의 성실'에는 치열한 열정과 끈기가 포함되겠지요. 상상력은 문학(특히 소설)의 필수요건입니다. 소설 자체가 기본적으로 이야기(픽션) 아닙니까? 그래서 나는 수강생들에게 "모든 사물의 이면을 바라보는 눈을 가져라", "상상력의 주머니를 한껏 채우라"고 귀에 못이 박히도록 강조합니다.

Q : 직업 작가뿐만 아니라, 현재는 성북문화원에서 문예창작을 가르치는 강사로도 활동하고 계신 데요. 글을 쓰는 것과 글을 가르치는 것은 또 어떻게 다르나요?

A : 쓰는 것과 가르치는 것은 엄연히 다르지요. 전문작가가 아닌 사람도 유창한 이론만으로 문과교수를 잘 해내는 반면, 작품은 기막히게 잘 쓰면서도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어떻게 풀어내야 할지 입이 떨어지지 않아 강단에 서기를 포기하는 작가도 있습니다. 나는 평생 동안 남을 가르쳐본 일이라곤 성북문화원 강의가 처음인데, 강사로서의 나에 대한 평가는 수강회원님들이 해주겠지요.

Q : 문예창작 강좌를 통해서 작가님께서 수강생에게 전달하고자 싶은 교육 목표가 있으실 텐데요. 글을 쓰고 싶지만 글쓰기에 막연한 두려움을 가지고 망설이시는 분들을 위하여, 어떤 교육 목표를 가지고 어떻게 수업 방향을 제시하는지 알 수 있을까요?

A : 내가 특히 강조하고 싶은 것은 '글쓰기의 생활화'입니다. 책상 앞에 앉아 자판을 두드리고, 혹은 엎드려서 노트나 A4용지에 볼펜을 끼적이면, 그 자체로 거기서 얻어지는 지적 충만감과 행복감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눈을 지그시 감고 음악을 듣거나 눈물을 글썽이며 영화를 보는 것과 비교할 수 없지요. 글을 쓰고 싶어하면서도 미리 겁부터 먹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 강좌 이름이 '문예창작실기'인 이상 그에 책임질 수 있는 손영목표 커리큘럼을 마련해놓고 있으며, 수강회원과의 개별적 커뮤니케이션이 필요한 경우 1대1 통신지도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Q : 범람하는 정보와 빠르게 변화하는 현시대에 우리가 여전히 책을 읽고 글을 써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A : 책읽기와 글쓰기를 하지 않음은 지적인간으로서의 지위를 포기하는 짓이나 다름없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동물계의 가장 으뜸자리를 차지하는 이유가 읽고 쓰는 능력 때문인데, 그 특별한 것을 포기한다면 심하게 말해 동물로의 퇴행이나 별반 다름없지 않습니까.

Q : 요즘 읽고 계시는 책이 있으신가요? 그리고 작가님께서 꼭 읽으라고 추천해 주실 만한 책은 어떤 것인가요?

A : 어떤 책이든 나름대로 읽을 가치를 지니고 있겠지만, 나는 순수한국문학 50권, 순수 세계문학(고전적인 작품으로) 50권을 꼭 읽으라고 권하고 싶습니다(특히 소설작품). 다다익선임은 물론이고, 100권을 읽고 나면 교양인으로서의 지적 성취가 충분함은 물론, 웬만한 문필가도 될 수 있습니다. 하필이면 왜 문학서적 중에서도 소설이냐. 그 속에는 인간생활의 영위에 필요한 모든 다양한 요소가 다 들어있기 때문이지요. 아무튼 그 100권만 독파하면 세상을, 인생을 보는 눈이 달라질 겁니다.

Q : 이번 10월에 '성북문예' 창간호가 발간되었는데요. 그 계기와 의미는 무엇인가요?

A : 강좌 개설 채 2년이 되지 않았는데 문집이라니, 사실 시간적으로 좀 빠른 감이 없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수강회원 네 분이 바른 코스로 당당히 문단에 데뷔했고, 등단 대기순번을 받았다고 할 수 있는 충분한 역량의 소유자도 여럿입니다. 당연히 창간호 문집 속의 작품들은 기성문인들에 전혀 손색이 없어요. 그런 만큼 성북문화원 연간결산 발표회에 맞추어 문집을 선보이는 것은 당연하며, 충분한 성과를 획득했다고 자부합니다. 문화원 단위로서 자체 문학작품집을 발간한 데가 있던가요? 우리 문예창작교실은 물론이지만 성북문화원도 목에 힘 줄 만할 겁니다.

가나다라마바사 아자차타카파하
안녕하세요 저는 윤상현이에염



인터뷰 중의 손영목 작가

Q : 마지막으로 작가님에 글을 쓴다는 것은 어떤 의미며, 앞으로의 활동 계획을 알려주세요.

A : 나에게 글을 쓰는 행위는 숨을 쉬고 밥을 먹는 것이나 거의 다를 바 없습니다. 소설가가 아닌 손영목? 그건 상상도 하기 싫군요. 앞으로의 활동계획은 물론 여러 가지가 있으나, 미안하지만 지금 밝힐 단계가 아니군요. 다만, 그 계획 모두가 당연히 소설, 문학, 글쓰기와 밀접하다는 건 밝혀도 되겠지요. 감사합니다. *Fin.*



“나 죽기 전에 꼭 한번 더 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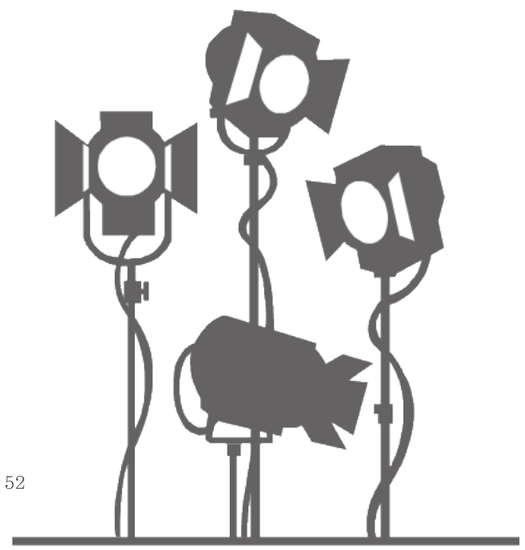
어르신 문화나눔 봉사단 희喜낙樂 _

취재_ **알파치노(가삼기획)**
사진_ **성룡(성북문화원 학예사)**

성북문화원에서는 지역 어르신들의 사회활동 증대와 문화예술교육 기회의 확대 제공을 위해 어르신 문화학교 사업의 일환으로 3년동안 나눔이 있는 어르신연극놀이교실 희喜낙樂을 진행했습니다. 올해는 어르신들의 적극적 사회참여와 재능기부를 확대코자 어르신문화나눔봉사단으로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누구나 한번 쯤 겪어보았던 이야기. 그렇기에 누구나 희희낙락의 연극에 몰입할 수밖에 없었고 어르신들이 꾸려나가는 ‘아름다운 나눔 봉사단 이야기’는 우리들의 마음에 따스한 봄으로 찾아오기도 하고 추운 겨울로 다가와 아프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들의 따스한 이야기를 희희낙락의 총괄 매니져 장재화 강사의 시선을 통해 잠시나마 여운에 잠겨보도록 하겠습니다.





1_ 희희낙락 연극무대
2_ 희희낙락 회원들의 단체사진

따르릉. 따르릉. 전화벨이 울린다.

– 여보세요. 네, 어머니!

– 우리 언제 또 만나? 언제 다시 시작해?

어머님의 아쉬운 목소리가 수화기 너머로 들린다. 나는 진심을 담아 희망적인 목소리를 낸다.

– 곧 만날 거예요. 제가 다시 전화 드릴게요.”

연극 일정이 모두 끝나는 한 해의 마지막 즈음이면, 다음 해의 연극을 기다리는 어르신들의 전화를 늘 받게 된다.



2003.11.08 남산골한옥마을 경복궁 지경다지기 놀이

2010년 성북문화원에서 〈희희낙락 어르신문화학교〉라는 명칭으로 첫 연극수업이 개강했다. 전쟁의 상처를 담은 악극 『굳세어라 금순아』로 2010년 처음 공연을 시작한 연극은 다음 해는 어르신들의 청춘 연애담을 소재로 한 청춘 드라마 『그땐 그랬지!』를, 그리고 3년 차에는 할머니들의 소중한 꿈을 향한 열정을 고스란히 담아낸 『할머니도 꿈이 있어?』라는 작품을 만들었다.

이 세 작품 모두 뜻깊은 의의를 지니고 있는 것은 어르신들 모두가 스토리텔링과 역할극에 참여하여 직접 이야기를 만들었다는 점이다. 그렇기에 어르신들의 반짝이는 아이디어와 생활 대사들로 극의 생명력이 더 크게 불어졌다.

특히 『할머니도 꿈이 있어?』는 2013년 한 해 동안 〈어르신 문화나눔 봉사단〉 이름으로 서울과 경기도 복지관에서 무려 14회의 공연이 올려졌다. 63세부터 80세의 연령층의 어르신들이 무탈하게 14번의 공연을 마친다는 것은 역시 쉬운 일이 아니었다.

예를 들어 복지관의 공연장에 따라 무대 동선은 매번 바뀌어야 했기에 어르신들이 때마다 바로바로 수용하기 어려운 점들이 이만저만이 아니었고, 1년이라는 시간 동안 진행되다 보니 크고 작은 오해들로 마음에 상처를 입기도 부지기수였다. 그러나 연극의 참된 의미는 과정에 있었다. 나눔 봉사단은 그 과정을 함께 겪으며 극복해 나갔고 그래서 더욱 빛을 발하는 연극을 펼칠 수 있었다.



2003.11.08 남산골한옥마을 경복궁 지경다지기 놀이

어느 날, 관람을 마친 관객분께서 극 중 주인공 할머니의 손을 꼭 잡고 “나 죽기 전에 꼭 한 번 더 와.” 라고 말씀하신 것이 기억에 남는다. 이렇게 공연이 거듭될수록 공연을 하는 배우나, 관람하는 관객 모두 〈할머니도 꿈이 있어?〉처럼 자신의 꿈과 열정을 다시 한 번 되새기는 소중한 시간이 되고 있었다.

가끔 공연이 끝나면 관객과 어울러 노래를 부르고 춤도 추는 신나는 한마당이 벌어진다. 그때, 누구보다 행복하게 웃던 할머니, 할아버지들의 얼굴은 결코 잊지 못할 것이다.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나눔이자 소통의 즐거움이었고 무엇보다 소중한 가치이다.

이 소중한 의미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성북문화원이 있고, 나눔을 실천하길 원하시는 어르신들이 계신다. 이런 에너지와 염원이 함께 하는 한 이 아름다운 행보는 계속될 것이다. *Fin.*



2003.11.08 남산골한옥마을
경복궁 지경다지기 놀이



04.

특집 3_

성북구의 문화유산 시리즈

성북동은 남서쪽으로 서울 한양도성이 지나고, 북서쪽으로는 구준봉 능선으로 이어져 한양도성 곡성이 있는 275m 고지에 이르는 산세로 이루어져 있다. 동북쪽으로는 팔각정 앞에서 북악산길을 경계로 성북구 정릉동과 경계를 이루며, 동남방향으로 돈암동·동소문동·삼선동과 경계를 이룬다.

조선 선비의 이상, 탄은이정의 〈풍죽〉

백인산(간송미술관 연구실장)

묵죽은 대나무가 지닌 다양한 함의와 글씨와 상통하는 기법적 특성으로 인해 문인들이 가장 좋아하고 즐겨 그리던 그림이었다. 우리나라에서도 북송(北宋)대 문인화론(文人畵論)에 영향으로 고려중기부터 묵죽이 그려지기 시작하였고, 유교문화가 꽃을 피웠던 조선왕조에 이르러 더욱 풍미하였다. 묵죽이 지니고 있는 군자적 상징성과 간결한 형상과 강직한 미감이 조선왕조를 개창하고 문화 전반을 주도했던 성리학자들의 이상과 지향에 부합되었기 때문이다. 도화서(圖畵署)의 화원(畵員) 선발 시험에서 산수나 인물보다 대나무에 가장 높은 배점을 주어졌던 사실은 조선시대에 묵죽이 얼마나 많은 사랑을 받았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증좌이다.

이에 묵죽은 조선초기부터 크게 유행하여 세종(世宗, 재위 1418ー1450), 성종(成宗, 재위 1469ー1494)과 같은 군왕과 강희안(姜希顔, 1417ー1464) 등 문인사대부들은 물론, 화원인 안견(安堅)에 이르기까지 폭넓게 그려졌다. 조선중기에 이르러서도 신잠(申潛, 1491-1554), 유진동(柳辰仝, 1497-1561), 신사임당(申師任堂, 1504-1551)이 묵죽 3대가로 명성을 떨쳤다. 그러나 이는 기록으로만 전해질 뿐, 신뢰할만한 작품이 전해지지 않아, 현재 이들의 묵죽 솜씨를 맛보기는 어렵다.

실제 작품을 통해 조선의 묵죽을 감상할 수 있는 것은 탄은(灘隱) 이정(李霆, 1554~1626)에 이르러서이다. 탄은은 세종대왕의 고손으로 태어나 석양군(石陽君)에 봉해진 종실 출신 문인화가이다. 그가 살았던 선조(宣祖)-인조(仁祖)년간은 임진왜란이나 병자호란과 같은 대규모의 전쟁에도 불구하고 내부적으로는 율곡(栗谷) 이이(李珥, 1536-1584) 등에 의해 성리학이 토착화되면서 문예 각 부문에서 점차 조선적인 면모를 드러내기 시작한 때였다. 문학분야에서 송강(松江) 정철(鄭澈, 1536ー1593)의 한글 가사(歌辭), 석주(石州) 권필(權韠, 1569ー1612)의 진경시(眞景詩)가 나오고, 글씨에서 석봉(石峯) 한호(韓濩, 1543ー1605)의 석봉체(石峯體)가 출현했다. 그림 쪽에서는 사군자 계열의 문인화가 앞장서게 되니, 탄은의 묵죽이 바로 그것이다.

탄은의 묵죽은 이러한 문예 변동의 핵심이자 정수로 당대는 물론이거와 후대에도 지대한 영향을 끼치며 조선 묵죽의 전범(典範)으로 확고히 자리잡게 된다. 그가 묵죽에서 이루어낸 성취는 조선 묵죽의 본격적인 시발(始發)과 양식적 정체성의 확립을 동시에 보여준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자못 크다. 탄은을 조선 묵죽의 종주(宗主)라 부르는 까닭이다.

이 〈풍죽〉은 탄은의 묵죽 중에서도 최상의 격조와 절정의 기량을 갖춘 백미라 할 수 있다. 거친 바위 틈에 뿌리를 내린 대나무 네 그루가 휘몰아치는 강풍을 맞고 있다. 뒤쪽 세 그루 대는 이내 찢게 나갈 듯 요동치지만, 전면의 한 복판에 자리한 한 그루의 대나무는 댓잎만 나부낄 뿐 튼실한 줄기는 탄력있게 휘어지며 바람에 당당히 맞서고 있다. 이 그림의 주인공이다. 그림자처럼 옅은 먹으로 처리한 후면의 대나무들은 보는 이로 하여금 거센 바람의 강도를 느끼게 하는 한편, 주인공을 한결 돋보이게 하는 조연들이다. 바위나 흙의 간결한 묘사도 다소 투박하고 서툴게 보일지 모르지만, 대나무에 시선을 모아 화면의 집중도를 흩트리지 않으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다.

화폭 전체에 금방이라도 터져 나올 것 같은 정중동(靜中動)의 팽팽한 긴장감이 감돈다. 마치 시간이 정지한 듯한 느낌을 받을 만큼 엄정하고 강렬하여 숨이 멎을 듯하여, 쉽사리 다가가기 어려운 일종의 경외심마저 느껴진다. 고난과 시련에 맞서는 선비의 절개와 지조를 상징하는 풍죽 본래의 의미와 미감을 이만큼 잘 살려낸 작품은 우리나라는 물론이거니와 중국에서도 찾아보기 힘들다.

혁신과 위기, 극복으로 이어지는 당시 사회의 흐름 속에서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초창(初創)의 건실성과 역동성, 대규모의 전쟁과 같은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비롯된 절박함과 비장함, 그리고 이를 극복해낸 긍지 등은 이 시기 조선 문인들의 보편적 정서였다. 탄은은 이러한 시대 흐름의 한 복판에 서있었던 일급 선비로 당대의 정서와 미감을 대나무를 통해 온전하게 형상화했다. 그런 의미에서 세찬 바람에도 굴하지 않는 지사(志士)의 절개를 형상화시킨 이 〈풍죽〉은 조선 선비의 이상과 지향을 가장 명확하고 직설적으로 담아낸 작품이라 할 수 있다.

그래서인지 당대와 후대의 많은 문인들이 탄은과 그의 묵죽을 아끼고 기렸다. 조선중기 4대 문장가로 꼽히는 이정구(李廷龜, 1564-1635)는 "석양공자는 대나무로 이름이 나서 세상에 그림 좋아하는 사람들이 앞다투어 달려갔다. 그 시원스런 붓놀림으로 타고난 재주를 신묘하게 펼쳐낸 것을 보니, 소동파(蘇東坡)의 신운(神韻)과 문여가(文與可)의 형사(形似)를 겸하였다."고 하였다. 묵죽의 실질적인 비조(鼻祖)라 할 수 있는 소식(蘇軾, 1037-1101)과 문동(文同, 1018-1079)의 운치와 사생력을 동시에 갖추었다는 말이니, 묵죽화가에게 보낼 수 있는 최상의 극찬이다. 또한



탄은
풍죽_
간송미술관

선조의 부마였던 윤신지(尹新之, 1582-1657)는 "석양(石陽)의 묵죽은 천하가 좋아하여, 당시 중국인들이 한 폭이라도 얻으면 내는 값에 한정을 두지 않았으니, 이는 천하의 보배임이 분명하다." 라고 상찬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중국에까지 명성을 떨쳤던 탄은 묵죽의 위상을 짐작케 한다.

탄은이 이같은 절세의 걸작을 남길 수 있었던 것은 시대의 요구를 뒷받침할 수 있는 천부의 자질과 부단한 수련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지만, 왕손이자 조선의 선비로서 흐트러짐 없이 격변의 시대를 당당하고 올곧게 걸어갔던 그의 삶과도 결코 무관하지 않다. 더구나 탄은이 임진왜란 때 왜적에게 칼을 맞아 팔이 잘려 나갈 뻔한 시련을 겪었던 사실을 떠올린다면, 〈풍죽〉에서 흐르는 고고함과 강인함은 그저 붓끝의 기교로만 이를 수 있는 경지가 아님을 알 수 있을 것이다.

발 빠른 변신과 변화를 성공의 첩경으로 여기는 세태가 만연하다. 그러나 변화 자체가 목적이 될 수는 없을 뿐더러 방향과 지향이 불분명한 맹목적인 변화와 변신이 초래할 결과는 자명하다. 변화를 요구하는 사회적 환경을 외면하고 살아갈 수는 없다. 다만 자신을 성찰하고 경계할 수 있는 확고한 기준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조선의 선비들이 지극히 사랑하고, 공명했던 탄은의 〈풍죽〉을 보며 떠오른 생각이다.

Fin.

선조들의 과학 혼천의_

주머니 속의 문화유산

화폐에는 그 나라를 대표하는 인물이나 문화유산이 담기곤 한다. 역사 교과서에 등장할 법한 소재들이 총출동한다는 점에서 화폐는 주머니 속의 작은 박물관인 셈이다. 이 가운데 1만 원권은 오랜 기간 최고액권의 자리를 고수하며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화폐로 군림해왔다. 5만 원권의 등장 이후 위상이 예전 같지 않지만, 푸른 빛깔의 만 원권은 여전히 우리 머릿속에 선명히 각인되어 있다. 아마도 만 원권에 그려진 인물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하지만 '세종대왕' 뒷면에 그려진 도안이 고려대 박물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국보 제230호 혼천시계의 일부임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을 듯하다.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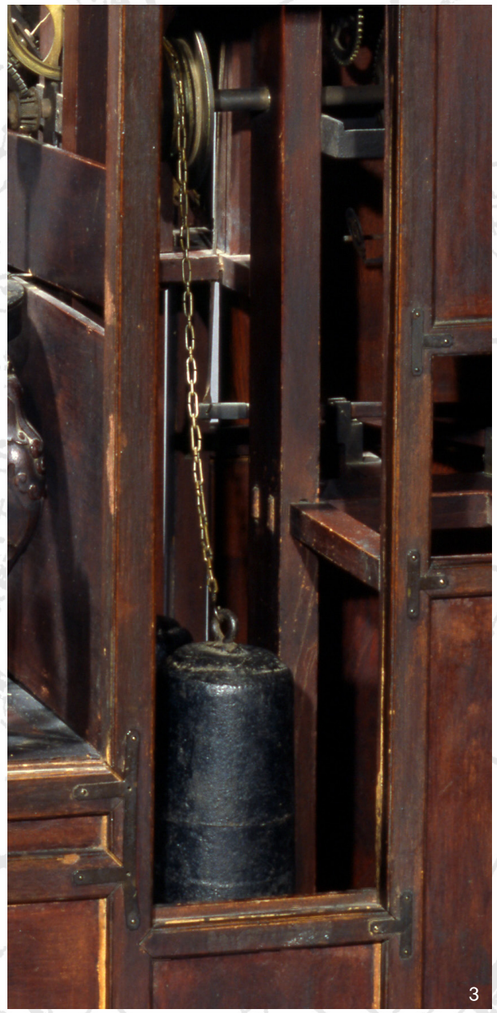
1_ 경복궁민속박물관 발표공연
2_ 단국대학교 발표공연
3_경복궁민속박물관 발표공연
4_ 2009.11.11 단국대학교 발표공연


2

추동식(錘動式) 자동시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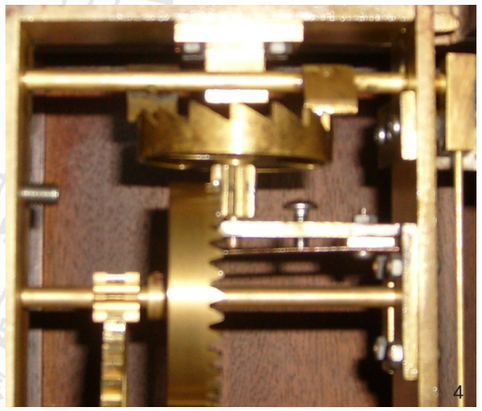
혼천시계는 크게 해와 달의 움직임을 보여주는 혼천의 부분과 시간을 알려주는 시계장치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시간은 시계눈금과 같은 역할을 하는 시패(時牌)와 종소리로 확인할 수 있다. 2시간에 한 번씩 시패가 움직여 시간을 표시해주고 종소리 역시 시간별로 타종 횟수를 조정해 시패를 보지 않고도 시간을 알 수 있도록 고안되었다. 그렇다면 아무런 전기장치가 존재하지 않던 그 옛날 어떻게 시계를 움직였을까?

해시계나 물시계가 아닌 이상 시계가 작동하기 위해서는 인공적인 동력이 필요하다. 물론 조선시대에 만들어진 혼천시계에 배터리가 장착되어 있을 리는 만무하다. 혼천시계를 움직이는 힘은 2개의 추에서 나온다. 혼천시계 안쪽에는 성인 남성이 들기에도 만만치 않은 무게의 금속추가 쇠사슬에 매달려 있다. 바로 이 추가 낙하할 때 발생하는 에너지를 이용해 시패를 움직이고 구슬을 굴려 종을 치는 것이다. 하지만 아무리 무거운 추라도 추의 낙하는 눈 깜작할 사이에 이루어지고 만다. 그렇다면 혼천시계는 어떻게 하루 종일 쉬지 않고 작동할 수 있었을까? 여기에는 서양의 최신 과학기술이 적용되었다. 혼천시계 안쪽에는 탈진장치가 부착되어 있다. 탈진장치는 톱니의 움직임(進)을 한 박자씩 늦춤으로서(脫) 추의 낙하속도를 조절해주는 장치이다. 혼천시계의 추는 그 무게에도 불구하고 한 시간에 고작 3cm 가량 낙하할 뿐이다. 즉 혼천시계는 탈진장치를 이용해 추가 낙하할 때 발생하는 에너지를 천천히 시계장치로 전달함으로써 일체의 '충전'(?)이나 '배터리'(!) 교환 없이도 시간을 알릴 수 있었다. 혼천시계를 작동시키기 위해선 하루에 두 차례 바닥까지 떨어진 금속추를 다시 올려주는 것만으로 충분했다.


3

우리 곁의 보물

세계적인 시계 강국이었던 조선에서도 자동시계의 제작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투박해 보이는 혼천시계의 안쪽에는 크고 작은 톱니바퀴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데, 각 톱니바퀴의 크기와 운동 주기를 정확히 계산해내야만 시계가 작동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작은 톱니바퀴 하나라도 어긋난다면 시계는 작동하지 않는다. 또한 톱니바퀴를 금속으로 가공하기 위해서는 축적된 기술력도 필요하다. 집채만 하던 자격루(自擊漏)가 작은 옷장 정도 크기인 혼천시계로 발전하기까지 200년 이상 소요되었음을 생각해보면, 혼천시계의 개발에 담긴 노력의 무게를 짐작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다. 혼천시계는 서양식 시계장치에 동양 전통의 혼천의를 결합함으로써 시계제작 기술의 역사상 가장 독창적인 천문시계로 평가받고 있다. 추의 움직임 하나로 태양의 위치와 달의 크기, 그리고 현재의 시간까지 알려주는 시계는 지구상에 혼천시계가 유일하다. 인류의 보물이 우리 곁에 가까이 있다. *Fin.*


4

05.

2013年 역사문화 탐방

아침부터 부슬부슬 비가 내렸지만, 수준 높은 역사 탐방을 떠난다는 기대로 마음은 설레었다. 문화원 앞에 이르자 근사한 관광버스 세 대가 늠름한 자태로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다.

취재_ **원빈(가삼기획)**
사진_ **장동건(성북문화원 학예사)**

2013年 상반기

역사문화 탐방1. (경북 영주시)_

손순옥

아침부터 부슬부슬 비가 내렸지만, 수준 높은 역사 탐방을 떠난다는 기대로 마음은 설레었다. 문화원 앞에 이르자 근사한 관광버스 세 대가 늠름한 자태로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다.

이번 탐방의 목적지는 소백산 아래 수많은 사연과 전설을 품고 있는 영주시이다. 도착지까지 네 시간 정도 걸렸는데, 그 동안 사학자인 사무국장님과 성북문화원 향토사연구원님의 쉽고도 격조 높은 사전 설명을 들을 수 있었다.

맨 처음 찾아 간 곳은 순흥면 읍내리 벽화 고분이었다. 우리나라의 고분 벽화는 대부분 고구려 시대 유적으로 알고 있었고, 그에 따라 모두 북한과 중국에만 있는 줄 알았었는데, 내가 살고 있는 남한에도 벽화 고분이 있다는 것이 신기했다. 지금 영주 지역이 신라시대에는 고구려의 선진문화가 들어오는 길목이었다는 설명을 듣고 나니 쉽게 이해가 되었다.

이 지역 별미로 소문난 묵밥을 가장 잘 한다는 식당에서 특별한 점심을 맛있게 먹은 후 부석사로 갔다.

성북문화원에서 성북동쪽으로 조금만 올라가면 우리나라 내셔널트러스트 1호인 최순우 옛집이 있다. 최순우 선생님의 명저『무량수전 배흘림기둥에 서서』를 탄생시킨 그 유명한 '부석사'이다. 무량수전의 배흘림 기둥만이 아니라, 모든 경내 건축물은 곡선의 아름다움이 넘실대고 있었다. 의상대사와 선묘의 전설이 얽힌 浮石(뜰浮돌石)은 무량수전 뒤편에 있었고 조금 더 위로 올라가니 의상대사의 진영을 보존



1

1_ 2013.05.28 역사문화탐방 상반기 단체사진
2_ 2013.05.28 상반기 부석사
3_ 2013.05.28


2

3

하고 있는 조사당이 나왔다. 조사당 처마 아래에는 의상 대사께서 꽂은 지팡이가 나무가 되었다는 신비화가 촘촘한 철망 안에 보호되어 있었다. 전설 속의 나무가 실제로 살아있는 모습을 보니 신기했다. 신비로움이 가득한 부석사를 뒤로 하고 소수서원으로 갔다.

초등학교 시절부터 달달 외워야 했던 우리나라 최초의 서원이다. 사천여 명의 학자를 배출했다는 명문 사학기관을 둘러보니 '조선시대 엘리트 젊은이들이 머물던 공간은 이러했구나' 하는 감상과 함께 '지금의 대학생과 캠퍼스를 후대 사람들은 어떻게 바라볼까' 하는 생각도 들었다. 멋진 운치를 자아내고 있는 죽계를 건너 박물관으로 가니 성리학의 발전과정과 소수서원의 역사를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는 자료가 전시되어 있었다. 이어서 넓은 공간에 조성된 선비촌은 조선시대의 선비마을을 멋지게 재현해 놓았다. 소수서원의 넓은 공간은 금성대군의 참사로 폐허가 된 공간에서 탄생되었다는 비화도 숨어있었다.

돌아오는 차안에서 많은 상념이 오고 갔다. 경상도, 강원도, 충청도 접경에 있는 영주시의 지정학적 가치가 이렇게 큰다는 사실을 알고 나니 지금까지 알고 있던 영주시가 달리 보였다.

여행은 아는 만큼 보인다고 한다. 의미와 배경을 알고 뜻깊은 역사 탐방을 가능하게 해 준 성북문화원에 고마운 마음이 들었다. *Fin.*



2013.05.28 소수서원에서의 즐거운 한때

2013年 상반기

역사문화 탐방2. (전북 고창군)_

추억 떨구기

성북구에 자리 잡은지 어언 10년, 나의 집은 숙식을 해결하는 하숙집일 뿐 이웃 간의 교류는 창고 속에 가둔지 오래다. 그러다가 내가 정을 붙이며 들락거린 곳은 언덕 위 낡고 오래된 건물뒤편에 돌아앉아서 조용히 찾아오는 이만 말없이 맞이하는 성북문화원의 시낭송반이다. 여기도 처음엔 하숙집마냥 들락날락 대면거리다가 어느새 가랑비에 옷 젖듯이 흠씬 젖어들고 말았다.

문화원에서 매년 봄, 가을에 가는 역사탐방이 있는 줄은 알았지만 그냥저냥 흘려버리다가 강한 주변인들의 추천으로 자의반타의반 올 봄 처음으로 영주에 다녀왔었다. 석관묘, 부석사 무량수전, 소수서원, 선비촌 등을 탐방하며 상세하고 유익한 역사 해설가들의 말을 경청하고 바라보니 기와 한 장, 돌멩이 이끼 하나까지도 다시 보였다. 모두 사연이 있고, 유구한 역사의 시간들을 머금었고, 전쟁의 환란에도 버텨준 대견하고 자랑스런 우리의 문화유산들..... 그리고 전체적으로 차분한 여행분위기가 참으로 좋았었기에 이번 가을의 탐방지 '고창'은 부푼 마음으로 나섰다. 아니 되레 손꼽아 기다리며 설레는 마음으로 관광버스에 몸을 실었다.

난 추억을 더듬으러 갔다. 가을이 나뭇잎에 색색의 고운 그림을 그리려는 찰나에 나의 마음 한켠에도 그 아름다운 자연의 그림들을 투영하여 힐링하고자 들뜬 마음으로 떠났다.



2013.11.08
판소리박물관 강연및
관람



2013.11.08 고창읍성의 전경

좋은 곳에서 주최하고 좋은 사람들과 함께여서 더 의미 깊고 좋은 역사탐방..... 그 목적지중 선운사는 지금으로부터 30년 즈음 꿈 많던 여고시절 1박2일 극기 훈련을 갔던 추억의 장소, 그래서 감회가 새롭다. 세계에서 고인돌이 가장 많다는 우리나라답게 먼저 코끼리만큼 커다란 고인돌과 옛 고읍을 재현한 민속마을을 돌아본 후 고창읍성을 돌았다. 일행들은 시도 낭송하고 수다도 쉼 없이 떨어가며 가을이 내려앉고 있는 성곽안의 그 옛날들과 마주했다. 그러다가 장난기 발동한 우리들은 풋풋치 못한 여고생이 되어 잔디밭에 엎드려 두 손으로 턱을 괴고 두 발바닥 하늘로 세우는 복고풍 사진도 찰칵찰칵, 중년의 아지매들 마음에 또 다른 추억도 찰칵찰칵 먼 훗날의 풍요를 기약해 보았다.

드디어 고대하던 선운사다. 두리번두리번 단풍이 붉으락푸르락 멋드러진 산사의 고운 풍경사이로 여고생인 내가 떠오르고, 나의 친구들도 아련히 떠오른다. 선운산 등반 후 흐르던 땀을 씻어내며 철철 흐르던 계곡물에 머리감았던 명쾌한 시원함이 홀연히 나타나 온 몸을 싸하니 감싼다. 역사 해설가님의 말씀 저 편으로 재잘거리던 단발머리 아이들의 해맑은 웃음소리가 들려온다. 갑자기 눈가에 무언가 어리듯하여 실눈을 뜨고 큰 심호흡으로 하늘을 본다.

30년 전의 나를 만난 나는 다시 30년 후를 그려본다. 건강한 노년의 여유로움으로 다시 오기를 바라며 그 때엔 또 무엇을 추억할까? 바람에 가을이 실려 오는 초가집 마루에 앉아 서로의 어린시절 얘기꽃을 탐스럽게 피우던 네 여인네들의 모습과, 그 중 인심 좋은 재주꾼 언니께서 건네준 잔디밭 복고풍사진들 봉투엔 이름대신 "예쁜님"이라 적혀있어 활짝 웃었던 고운기억을 즐겁게 끄집어 낼 것 같다. 또 처음 알게 되신 분께선 출사 나오신 듯 다수의 작품사진들을 아낌없이 톡으로 보내주시었다. 그 중 내가 출연한 20년이나 젊어 보임직한 것으로 골라 프로필 사진으로 활용하며 지인들에게 사기 아닌 사기를 칠 수 있으니 인정 많은 고마움을 추억해 낼 것이다. 내년엔 또 어디로 갈 것인가.... 기다려지는 다음 탐방을 상상하며 돌아오는 추억여행의 두 손에는 선생님께서 사주신 베개만한 고창고구마가 낑낑거리며 매달려 따라왔다.

시월의 거진 마지막날 즈음에 *Fin.*



2013.11.08 판소리박물관 정경



1

1_ 2013.10.17 선운사의 전경
2_ 2013.11.11 고창읍성의 전경
3_ 2013.11.11 고인돌박물관 관람



2

추억 줍기_

콩닥콩닥 부푼 가슴 그 장소에 올라서니
시원한 계곡물에 머리감던 단발소녀들
수줍은 웃음소리가 선운산을 간지르네

두근두근 그리움을 그윽히 주워들고
이제는 소녀딸을 둔 중년으로 다시 서서
단풍된 고운 새추억 담수속에 잠드네



3

06.

특집5.
성북의 인물들

성북동은 남서쪽으로 서울 한양도성이 지나고, 북서쪽으로는 구준봉 능선으로 이어져 한양도성 곡성이 있는 275m 고지에 이르는 산세로 이루어져 있다. 동북쪽으로는 팔각정 앞에서 북악산길을 경계로 성북구 정릉동과 경계를 이루며, 동남방향으로 돈암동·동소문동·삼선동과 경계를 이룬다.

운명적 독립운동가의 길_
이규창.

프롤로그.

탕탕! 1935년 3월 25일, 중국 상해시 홍구(虹口) 거류민회관 3층에서 두 발의 총소리가 들렸다. 총에 맞은 사람은 즉사했다. 암살의 임무를 성공적으로 마친 두 사람은 속히 자리를 빠져나가려 했다. 하지만 한 여인이 암살자 가운데 한 명의 머리를 칼로 내리쳤다. 실랑이가 벌어졌다. 칼에 맞지 않은 어려보이는 한 명은 차마 죄 없는 여인에게 총을 쏠 수 없었다. 시간은 점점 흘러갔다. 그는 하늘을 향해 총을 발사했고, 그 틈에 칼을 맞은 다른 한명은 간신히 여인을 뿌리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미 많은 사람이 모였고, 중국 경찰에게 포위된 상황이었다. 두 암살자는 곧 체포되었다.

암살된 사람은 겉으로는 독립운동을 했지만 사실은 그 안에서 일본에게 정보를 팔았던 이용노(李容魯), 그에게 직접 총을 쏘았고, 여인에게 칼을 맞은 사람은 엄형순(嚴亨舜, 혹은 舜奉), 그리고 차마 엄형순에게 달려든 죄 없는 여자에게 총을 쏘지 못한 어려보이는 인물은 이규호(李圭虎)였다. 조선인이었던 엄형순은 곧 일본에 인도되었고, 중국 호적을 갖고 있던 이규호는 중국 경찰에 조사를 받았다. 하지만 일본은 곧 중국인 이규호가 독립운동가 이회영의 셋째 아들 이규창(李圭昌)임을 밝혀냈고, 그의 신변도 중국으로부터 인계 받는다. 체포되었을 당시 이규창은 3일전 22번째 생일을 지낸 후였다.

무엇이 22살의 젊은이에게 총을 들고 사람을 죽일 마음을 먹게 하였을까? 이제 그 이야기를 추적해보자.



최고의 명문집안에서 태어나 가난한 삶을 살다.

이규창은 1913년 3월 28일 만주 통화현에서 태어났다. 아버지는 이회영, 어머니는 이은숙이었고, 둘 사이에서 태어난 첫 번째 아들(앞의 두 아들은 전 부인과의 사이에서 낳은 아들)이었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모두 조선 최고의 명문가라해도 손색없는 가문 출신이어서 힘든 생활이 처음이었지만, 그에게 고된 삶이란 태어날 때부터 예정된 운명이었다. 해방직전까지 그의 생활은 굶지만 않으면 다행인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온 가족이 함께하는 시간도 그에게 쉬이 허락되지 않았다. 아버지의 얼굴을 처음 본 것도 태어나고 5년이 지나서였다. 아버지를 모시기 위해 쫓아다닐 때에는 어머니와 함께하지 못했다. 그런 그였기에 아버지를 만나 가족이 모여 살던 서울에서의 기억은 비록 긴장의 연속이었지만 '평온한 나날'이었다.

하지만 독립운동가 아버지를 둔 사람의 운명이 계속 평온할 수는 없었다. 독립운동을 위해 아버지가 북경으로 떠나자 가족들은 같이 떠나야했다. 처음 북경에 도착했을 땐 그나마 살림이 괜찮았다. 하지만 계속해서 찾아오는 식객을 맞이하느라 살림은 점차 어려워졌고, 중국 상인의 빚을 갚지 못하는 일도 생겼다. 그뿐 아니었다. 식구들, 가족처럼 지내던 사람들이 병에 걸려 죽어나가도 변변한 치료조차 해줄 수 없었다.



젊은 시절의 이규창
왼쪽에서 세 번째. 1954년 광한루에 놀러갔을 때 찍은 사진이다.

학교를 갈 형편도 못되었다. 그런데 마침 상해에서 한국 독립운동가들과 중국동지들이 노동대학을 설립하게 되었는데, 규창을 그곳에 입학시키라는 편지가 상해에 있는 이을규(李乙圭)선생으로부터 왔다. 하지만 이제는 중국으로 갈 차비조차 없었다. 결국 그는 밀항을 해야했고, 어렵게 상해에 도착할 수 있었다. 그렇게 힘들게 상해에 도착했지만 결국 학교는 세워지지 못했다. 그는 결국 아무 성과 없이 천진으로 돌아와야 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돌아갈 때는 밀항을 하지 않아도 되었다는 점이었다. 이때 그의 나이 겨우 12살이었다.

천진에 돌아와서도 학교는 다녀야 했다. 그러나 돈이 없는 상황이 그가 상해에서 고생하고 왔다고 나아질리 없었다. 결국 그는 한국인 자제에게 호의적이었던 장백령(張伯玲)이 설립한 남개중고등학교(南開中高等學校)에 사정을 말하고 입학할 수 있었다.

어려운 상황은 계속되었다. 당시 상황이 얼마나 어려웠는지를 보여주는 사건이 있다. 하루는 심산 김창숙의 사촌인 김창국(金昌國)이 이회영에게 권총 한정을 맡아달라고 부탁을 했다. 그런데 당시는 단칸방에서 이회영, 누이 둘, 이규창, 김사집(이회영의 동지) 이렇게 다섯이 살며, 3~4일씩 굶기를 예사로 하던 때였다. 굶주림을 참지 못한 김사집이 그 권총을 전당포에 맡기고 돈을 빌려와 수일 간 끼니를 채운 일이다. 그러나 곧 김창국이 돌아와 권총을 돌려받으려 했고, 당장 되찾을 돈을 구하지 못한 이회영은 김창국에게 폭언을 당하고 말았다. 이후 겨우 돈을 빌려 총을 찾아주긴 하였지만, 당시 이회영 식구들의 비참한 삶은 이와 같았다.

여름은 어떻게 지내도 겨울은 더 큰 문제였다. 하북(河北)의 겨울은 영하 20도까지 내려가는 맹추위를 자랑했다. 오랜 타지 생활로 몸이 약해진 이회영에게, 난방도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런 맹추위는 견디기 힘들었다. 그리고 그런 아버지를 옆에서 모시던 사람이 바로 이규창이었다. 그는 아버지가 돌아가실까 염려가 되어 주인집에서 홑옷을 빌려 입고, 부잣집에서 버리는 매탄을 주어, 쓸만한 것을 골라 아버지 방에 불을 때곤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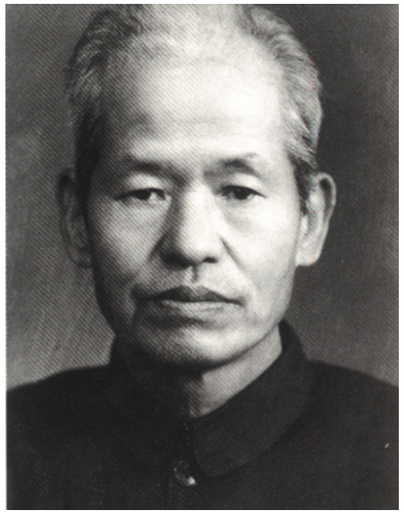
이을규(李乙奎, 생몰년 미상)
일제강점기의 독립운동가. 독립대동단에 가입해 활동하였으며, 상하이로 망명하여서는 의열단에 가입하여 무기제조 및 무장활동을 했다. 1929년 7월에는 김좌진(金佐鎭) 등이 주도한 한족총연합회에 참여해 무정부주의 운동을 전개하기도 했다.

독립운동을 하다.

비참한 생활은 계속되었지만 독립운동을 멈추지는 않았다. 그는 아버지인 이회영과 동지들의 심부름을 계속하였다. 의열단과 다물단 등 단체 사이의 연락을 맡아 하기도 했다.

1930년, 이규창은 아버지 이회영과 함께 상해로 갔다. 당시 상해 임시정부의 상황은 비참했다. 임시정부 요인들은 버스·전차 검표원으로 번 돈을 보조받아 생활했다. 이규창 역시 약방에서 일하며 돈을 벌어 생활비를 보태며, 아버지의 독립운동을 도왔다.

1932년 2월 일본이 상해사변을 일으켰다. 상해의 독립운동가들도 무엇인가 대책을 세워야했다. 이규창이 참여한 남화한인청년연맹은 이런 분위기에서 결성되었다(의장 유자명). 그리고 중국의 항일운동가들과 함께 기관파괴와 요인암살, 친일분자의 숙청, 비항일 선전 등을 목적으로 하는 항일구국연맹도 결성했다. 이들의 활약은 나름 성과가 있었다. 친일 행위를 하는 자의 부관을 암살하고, 일본 영사관을 폭파했으며, 일본의 군수물자를 싣고 오는 배에 폭탄을 던지기도 했다. 하지만 일본은 상해에서 승리했다. 그리고 1932년 4월 29일 승전축하와 일왕의 생일을 축하하기 위한 행사를 열었는데, 이때 윤봉길 의사가 폭탄을 던진다.



유자명(柳子明, 1894년 1월 13일 ~ 1985년 4월 17일)
한국의 독립운동가이자 아나키스트이다. 신채호의 『조선혁명선언(1923)』의 기초에 참가하였으며, 독립운동진영에 일급 참모로 전해진다. 해방 후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어느 쪽으로도 귀국하지 못하고 중국에서 일생을 마쳤다. 북에서는 1978년 3급 국기훈장을 받았으며, 1991년에는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건국훈장 애국장을 추서받았다.

이 사건으로 상해의 독립운동가들은 다시 시련을 맞는다. 안창호는 프랑스 조계지에 위치한 한 집의 돌잔치에 참여하였다가 일본 경찰에게 잡힌다. 이회영 역시 몸도 피하고, 새로운 세력을 규합하기 위해 대련으로 향하다 일본 경찰에게 체포되고 곧 순국한다. 이들의 갑작스러운 체포는 독립운동가들 내부의 배신자들 때문이었다.

독립운동 진영은 내부 변절자들 제거에 나섰다. 가장 먼저 살해당한 사람은 옥성빈(玉成彬)이었다. 그가 살해당한 혐의는 안창호 선생의 체포를 도운 것이었다. 다음으로 제거된 사람들은 이태공(李太公)과 연충열(延忠烈)이었다. 이들은 이회영 선생의 행로를 일본에 알린 것이었다. 옥성빈의 사촌으로, 역시 일본과 내통하고 있던 옥관빈 역시 제거됐다. 옥관빈을 제거한 것은 이용노를 암살한 엄형순이었다. 처음 소개한 이용노 암살도 이 연장선에서 일어난 일이었다. 22살의 생일을 막 지난 젊은이는 조국의 독립을 위해, 아버지의 복수를 위해 총을 들었던 것이다.

이용노를 암살하고 체포된 그는 5월에 서울로 압송되었다. 그들이 처음 가서 취조를 받은 곳은 종로경찰서였다. 말이 취조지 고문이었다. 그가 당한 고문은 물고문이었다. 나무 침대에 손발이 묶이고 배에 형사 한 사람이 올라 타 얼굴에 물을 부었다. 숨을 쉴 수 없어 기절하면, 인공호흡으로 물을 토하게 한 후 다시 이것을 반복했다. 그뿐 아니었다. 형사가 국어(國語)를 할 줄 아냐고 물었다. 이규창은 할 줄 안다고 대답하고 지금 하는 말이 국어라고 대답했다. 그러자 형사는 피고 있던 담배를 이규창의 손등에 비벼 껐고, 그 상처는 그가 죽을 때까지 손등에 남았다. 그들은 고문을 통해 모든 일을 엮으려했다. 하지만 아무리 고문을 해도 하지 않을 일까지 자백할 수는 없었다. 더 이상의 혐의가 찾아지지 않자 이규창은 서대문구치소로 이감되었다. 그의 수감번호는 661번이었다.

미결수 생활을 하며 간수 몰래 통방(通房)하는 것도 배웠다. 통방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한 손으로 책을 들어 독서 하는 척 하면서 다른 한손으로는 벽을 쳐서 신호를 보내는 것이었다. 한 번 치면 '가'였고, 연거푸 두 번을 치면 받침 'ㄴ'이, 세 번 치면 '다'가 되는 식이었다. 능숙한 사람들은 이것으로 의사소통을 자연스럽게 했다. 이를 알려준 것은 아이러니하게 조선인 간수였다. 그의 이름은 채영식(蔡榮植). 그는 후에 성북경찰서장이 되어, 홍천사에서 이규창을 융숭하게 대접한다. 그는 그곳에서 감옥의 생리, 수감자들의 특성 등 감옥생활에 필요한 많은 것을 배웠다.

고문 속에서

이용노를 암살하고 체포된 그는 5월에 서울로 압송되었다. 그들이 처음 가서 취조를 받은 곳은 종로경찰서였다. 말이 취조지 고문이었다. 그가 당한 고문은 물고문이었다. 나무 침대에 손발이 묶이고 배에 형사 한 사람이 올라 타 얼굴에 물을 부었다. 숨을 쉴 수 없어 기절하면, 인공호흡으로 물을 토하게 한 후 다시 이것을 반복했다. 그뿐 아니었다. 형사가 국어(國語)를 할 줄 아냐고 물었다. 이규창은 할 줄 안다고 대답하고 지금 하는 말이 국어라고 대답했다. 그러자 형사는 피고 있던 담배를 이규창의 손등에 비벼 껐고, 그 상처는 그가 죽을 때까지 손등에 남았다. 그들은 고문을 통해 모든 일을 엮으려했다. 하지만 아무리 고문을 해도 하지 않을 일까지 자백할 수는 없었다. 더 이상의 혐의가 찾아지지 않자 이규창은 서대문구치소로 이감되었다. 그의 수감번호는 661번이었다.

미결수 생활을 하며 간수 몰래 통방(通房)하는 것도 배웠다. 통방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한 손으로 책을 들어 독서 하는 척 하면서 다른 한손으로는 벽을 쳐서 신호를 보내는 것이었다. 한 번 치면 '가'였고, 연거푸 두 번을 치면 받침 'ㄴ'이, 세 번 치면 '다'가 되는 식이었다. 능숙한 사람들은 이것으로 의사소통을 자연스럽게 했다. 이를 알려준 것은 아이러니하게 조선인 간수였다. 그의 이름은 채영식(蔡榮植). 그는 후에 성북경찰서장이 되어, 홍천사에서 이규창을 융숭하게 대접한다. 그는 그곳에서 감옥의 생리, 수감자들의 특성 등 감옥생활에 필요한 많은 것을 배웠다.

서대문 형무소.
일렬로 쭉 닫혀있는 철창이 을시년스럽다.



공판과 서울에서의 감옥살이

"피고 엄형순에게 사형, 이규창에게 13년 형을 언도한다. 불복할 때는 일주일 이내에 상고(上告)하도록. 탕탕탕!" 1936년 2월 18일 판결이 내려졌다. 2월 4일 1차 공판이 있었고, 2주 후에 내려진 판결이었다. 엄형순은 판결 후 이규창에게 웃으며 '몸 건강히 있다가 좋은 세상 만나면 어머니 잘 모시고 살라'고 이야기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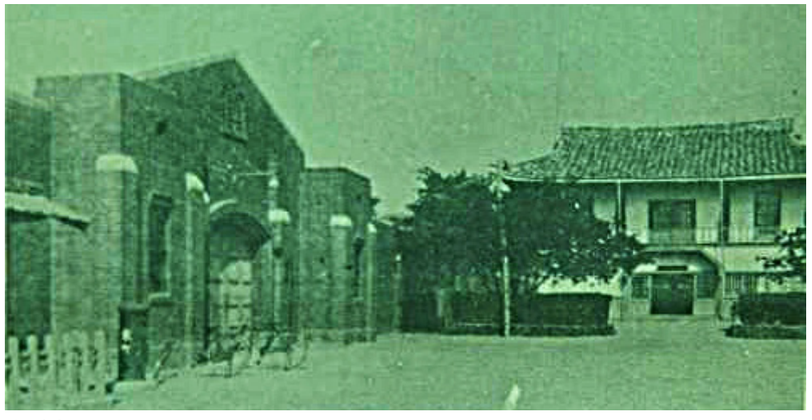
일본 검찰은 이규창의 형량이 낮다고 항소한다. 그들은 이규창의 죄목에 옥관빈 살해 공모 혐의도 추가했다. 그러나 엄형순은 옥관빈 살해사건 역시 자신의 단독 범행이라고 말하고 모든 죄를 혼자 감당했다. 결국 이규창에게는 13년 형이 확정되었다.

형이 확정되고 이규창은 당시 10년 이상 장기수를 수용하던 마포형무소로 이감 됐다. 그곳에서 그는 인쇄공장으로 사역을 나갔다. 마포 형무소에서 밥은 콩밥과 국, 그리고 무 겉절이, 그리고 특찬으로 명태 조린 것이 나왔다. 특찬은 아무나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었고, 소위 '개과천선하였다고 인정되는 죄수들에게 주는 상장에 대한 포상으로 주어졌다. 어느 것 하나 몰래 가져나올 수 없게 공장은 나체로 출입하여야 했을 뿐 아니라, 입속까지 검사했다.

그러던 1937년 9월 어느날, 이규창은 공산주의자 박세영(朴世榮)과 함께 인쇄소에서 독립을 염원하는 강령이 담긴 팜플릿을 인쇄하여 배포한다. 하지만 곧 둘은 주모자로 발각된다. 박세영이 먼저 불려갔는데, 그는 모든 사건의 지휘를 자신이 하였다고 주장하였다. 덕분에 이규창은 비교적 '혹독하지 않은 처벌'을 받는다. 그 '혹독하지 않은 처벌'은 수갑을 차고 암실 독방 3개월, 감식벌 2주였다. 독방은 발을 펴고 잘 수도 없을 만큼 좁은 곳이었다. 그뿐 아니었다. 그는 이 사건으로 징역 10개월이 추가되었으며, 독방 생활도 41년까지 만 4년을 하게 된다. 이후 41년 10월 독방에서 나온 그는 고려청자 공장에서 사역을 하게 된다.



엄순봉 열사 기적비
경상북도 영양군 삼의사비(三義士碑) 중 하나이다. 1977년 처음 세워졌으나 미흡한 내용이 있어 1998년 다시 세워졌다.



광주형무소 전경
1908년에 개설되었다. 처음에는 광주감옥으로 불렸으나 1923년 광주형무소로 이름이 바뀌었고, 1961년 광주교도소로 개칭되었다.



이규창 선생

생과 사의 순간을 목격하던 광주형무소 생활

1942년 3월, 간수가 이규창을 불렀다. 간수장은 곧 그가 광주(光州) 형무소로 이감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며칠 후 그는 광주로 이감됐다. 기차를 타고 이동하였는데, 이동하는 동안은 사람들이 그의 얼굴을 볼 수 없도록 용수를 써야했다.

광주 형무소는 경성에 비해 규모가 작았다. 수용인원은 5~600여명이었고, 대부분 5년 이하의 단기수들이었다. 뜻밖의 이감이었지만, 그에겐 행운이었다. 의무과장 장재성(張在性)이 그를 특별히 의무실 사역으로 뽑았기 때문이다. 의무실은 가장 편한 사역장 가운데 한 곳이었고, 의무과장은 형무소 내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쉽게 의무실 사람들을 건드릴 수 없었다.

그러나 이번엔 정신적으로 힘든 일을 겪게 되었다. 의무실에 오는 죄수들은 대개 고문을 받고 굶은 상태에서 왔다. 이규창은 이곳에서 처음 사람의 시신을 염하게 된다. 이후 그는 해방을 맞아 출옥할 때까지 352구의 시신을 염하게 된다. 사람이 이렇게 많이 죽게 된 것은 죄수들이 군항(軍港) 사역을 나가면서부터였다. 고된 사역이 가장 큰 원인이었지만 이질이 돌게 된 것이 직접적 원인이 됐다. 결국 죄수들이 죽기 시작했다. 일본 당국도 이것을 심각하게 받아들였다. 결국 가망이 없다고 판단되는 중환자들은 병보석으로 가족에게 보냈다. 하루에 9명이 죽기도 했다. 건체 수감인원이 5~600명이라는 것과 많은 중환자를 병보석 한 것을 감안하면 엄청난 사람이 죽었음을 알 수 있다. 그는 당시 중환자를 돌보고 시신을 처리하는 것을 '고역'으로 기억한다. 몰래 울기도 했다.

하지만 그는 건강했고, 시간은 흘렀다. 1944년 봄에는 동생 규동(圭東)이 면회를 와서 만나기도 했다. 18살 동생을 본 것은 이때가 처음이었다. 1945년 8월 15일, 평소와 다름없이 아침을 준비하던 그는 오늘 중대 사건이 터질 것이라는 말을 전해 들었다. 정오가 됐다. 라디오에선 15분에 걸쳐 일왕의 항복발표가 흘러나왔다. 그는 소리를 질렀다. 옆에 있던 환자들이 진정하라고 할 정도였다. 곧 독립운동가, 사상범, 전시법 위반자는 가출옥이란 형태를 빌려 출옥 시키자는 방침이 정해졌다. 8월 17일 정오, 그는 형무소를 나왔다. 만 9년, 횟수로 10년 만이었다.

에필로그.

많은 젊은이들이 자신의 선택으로 독립운동의 길에 나섰다. 이봉창 열사도, 윤봉길 의사도 모두 자신의 선택으로 죽음을 각오했다. 하지만 이규창에게 독립운동은 운명이었다. 그도 그렇게 생각했다. 그의 자서전 제목은 ‘運命의 餘燼’이다. 운명이 남긴 나머지란 뜻이다. 그의 어머니 이은숙 여사와 같이, 그 역시 자신의 힘든 운명에 도망가지 않고 당당히 맞섰다. 그는 특별한 사람이 아니었다. 그도, 그의 아들 이규철씨도 그렇게 기억해주길 바랬다. 평범한 사람이었던 독립운동가 아버지와 그 동지들을 기억하는 이규철씨의 인터뷰 내용 일부로 글을 마무리 하고자 한다.

“그러니까 똑같은 거야. 그냥 근데 내가 그 되게 재밌는 게, 독립운동한 분들에 대해 너무 신화적으로 얘길 해서 접근성을 차단 시켜. 다 거짓말이야. 다 이웃집 아저씨나 똑같은 거예요 근데 사고를 어떻게 갖느냐에 따라서 방향이 정해지는 거지. 독립운동한 분들 중에서도 성격적으로는 아주 안 좋은 사람도 많아. 친일파들도 성격 좋은 사람도 많고. 그건 다른 거야 근데 그거를 우리나라 보면 이분적으로 나눠놔서.. 웃기는 얘기지. 무슨 항일 테러 했던 분들 얘기 나오면 미화시키고 그럴 필요도 없잖아. 그냥 사실대로 해서 젊은 애들이 ‘나도 이렇게 할 수 있어’ 하는 거지. 신화처럼 해 놓으면 그런 사람을 누가 따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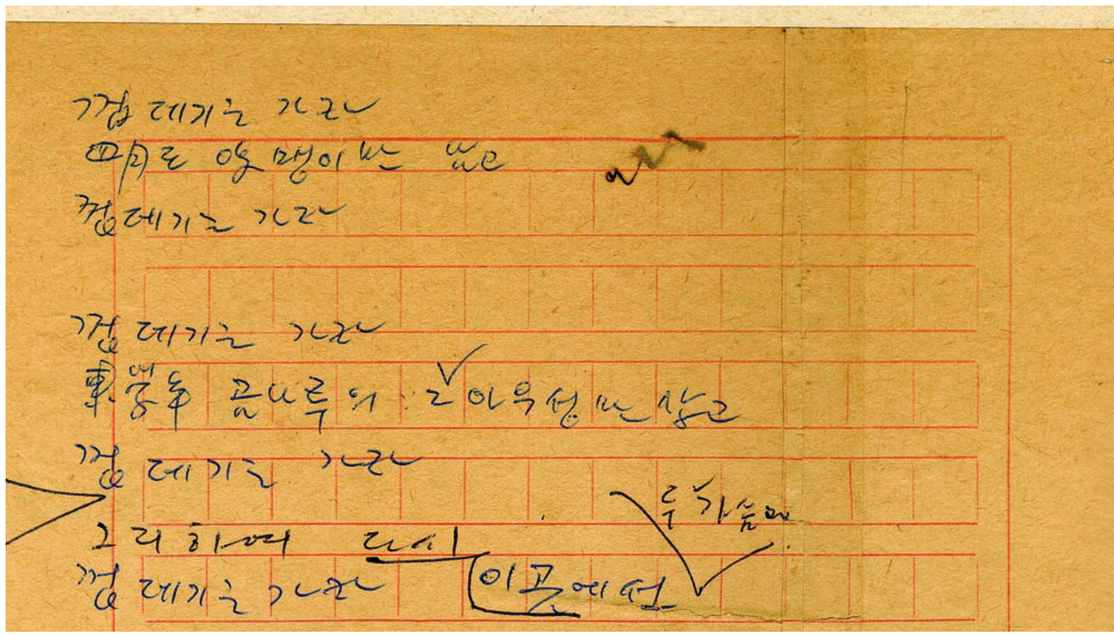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맑은 날을 보다.

시인 신동엽(申東曄)과 돈암동 · 동선동

네가 본 건, 먹구름
그걸 하늘로 알고
일생을 살아갔다.

– 시(詩), 「누가 하늘을 보았다 하는가」 중에서 –

우리가 기억하는 시인(詩人) 신동엽(申東曄)은 참여시인이요, 저항시인이다. 그러나 그가 본격적으로 사회의 썩고 어두운 곳을 후벼파는 시어를 원고지에 적어 내려간 곳에 대해 사람들은 잘 기억하지 못 한다. 신동엽의 시 세계는 4월 혁명이 강하게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은 널리 알려져 있다. 그리고 시인이 4월 혁명을 목도한 곳은 바로 우리고장에 위치한 동선동이었다. 동선동은 시인에게 어떠한 의미를 지녔던 것일까? 먼저 시인의 일생을 되돌아보면서 시인에게 강한 영감을 제공했던 공간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자.



껍데기는 가라 초고



신동엽 시인

1. 시인이 성북구에 자리를 잡게 되었던 과정

신동엽(申東曄)은 1930년 8월 18일에 출생하여 1969년 4월 7일에 작고한, 한국의 현대시인 가운데 한 사람이다. 그는 충청남도 부여 출생으로 전주사범학교를 졸업하여 단국대학교 사학과를 졸업하고 1959년 조선일보 신춘문예에 시 「이야기하는 쟁기꾼의 대지」가 당선되면서부터 본격적인 작품 활동을 시작했다.

그가 시를 쓰게 된 것은 그의 부친이 일찍부터 그의 재능을 발견하여 뒷바라지를 해 주었기 때문이었다. 시인의 아버지는 성정이 차분한 자신의 장남을 보면서 글을 가르쳐야 했다고 생각했다고 한다. 6살 때부터 글을 가르쳤으며 없는 살림이었지만 책과 필기구를 마련하여 아들이 공부를 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었다. 아들 역시도 어릴 적부터 독서에 힘써서 자신의 세계를 만들어 나갔다고 한다. 그는 숙식을 제공해 주었던 전주사범학교에 진학하여 부친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아 학교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다.

그러나 시인은 1948년 11월 토지개혁 미실시와 친일파를 제대로 처단하지 않은 이승만 정권에 반대하는 동맹휴학에 참여하게 되어 학교에서 퇴학당했다. 그러나 교원자격만은 없어지지 않았기에 그는 이듬해인 1949년 부여 주변에 있던 국민학교 교사로 발령을 받았다. 하지만 시인은 3일 만에 교사직을 그만두게 되었다. 정부수립 이후 이승만 정권의 잇따른 실정에 대한 실망감이 컸던 것 같은데, 그러한 까닭에 그는 서울에 올라와 단국대학교 사학과에 입학했던 것으로 보인다. 부친은 밭을 처분하여 학문을 하겠다는 장남의 의견을 존중해주었다.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시인은 고향인 부여로 다시 낙향했다. 인민군이 부여를 점령하자 인민군은 그를 그해 9월 말까지 부여 민주청년동맹의 선전부장에 앉혔다. 시인은 직접적으로 정치에 관심을 가진 것은 아니었다. 앞서 교사직을 그만두고 역사학의 길로 접어들었던 것 역시 직접적인 정치활동을 하겠다는 것이 아니었다. 다만 세상을 어떻게 해서든 바꾸겠다는 공산주의자의 생각에 잠시나마 동조를 했기 때문에 얼결에 민주청년동맹의 선전부장직을 맡았던 것으로 볼 수 있다. 다시 부여에 국군이 들어오고 난 뒤 시인은 국민방위군에 들어갔는데 이러한 점은 인민군의 실정에 점차 환멸을 느꼈고 그 때문에 다시 국민방위군에 입대를 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국민방위군에 참여했을 때 굶주림 때문에 디스토마에 감염되기도 하였다.

시인은 1953년 단국대학교 사학과를 졸업했다. 졸업 이후 제1차 공군학도간부 후보생에 지원했으나 발령은 받지 못했다. 시인은 할 수 없이 서울에서 일자리를 구하고자 하였다. 이 무렵 그는 성북구 돈암동에 자취방을 얻어 그곳에서 생활을 시작해 나갔다. 친구의 도움으로 당시 돈암동 네거리에 헌책방을 열였던 것이다. 이곳에서 그는 당시 이화여고 3학년이었던 부인 인병선을 만났고 1957년 그녀와 결혼하였다. 결혼 이후 시인은 잠시 부여로 낙향했으나 이내 다시 부인과 자녀를 서울로 올려 보내고 홀로 요양하면서 독서와 글쓰기에 빠졌다.

그가 조선일보 신춘문예에 당선되어 등단했던 것도 바로 이 무렵이었다. 이후 그는 등단도 하였고 아울러 건강도 회복되어 처자가 있는 성북구로 재차 올라왔다. 시인과 가족의 거처는 성북구 동선동에 마련되었다. 시인은 교육평론사라는 잡지사에 취직을 하여 안정적인 삶을 꾸려나가기 시작했다.

2.시인의 눈에 비친 '맑은 하늘'

부인 인병선의 증언에 의하면 시인은 1960년 4월 어느 날 하루 종일 집에 들어오지 않았다고 했다. 시인은 저녁에 들어왔는데 얼굴은 상기되어 있었고 눈은 반짝 반짝 빛나고 있었다. 온 몸과 구두에는 먼지 투성이었는데, 부인은 이를 통해 시인이 하루 종일 거리를 돌아다녔음을 알았다.

시인이 서울에서 삶의 터전을 이룬 곳은 돈암동과 동선동 일대였다는 것은 앞서 언급한 바 있다. 앞서 시인이 재직했던 직장인 교육평론사는 종로구 내수동 168번지였다. 1960년 4월 19일 시인이 집을 나와 회사로 가는 길 일대는 온통 학생들과 민중들이 이승만 정권에 반대하는 집회를 곳곳에서 벌여나가고 있었다. 학생을 예로 들자면, 삼선교 부근의 한성여자중학교와 지금의 혜화로타리 부근의 동성고등학교 학생들이 무리를 지어 이승만 독재정권에 항거하는 시위를 전개해 나가고 있었다. 시인은 바로 이러한 모습을 목도하고는 온 몸이 먼지투성이가 되는 것도 잊은 채 이 자발적 시위를 정신없이 목도하며 거리를 돌아다녔던 것이었다.

그는 이러한 민중의 봉기를 어떻게 보았을까? 이에 대한 해답은 시인이 4월 혁명에 쓴 시인 「아사녀」에 잘 나타나 있다.

시인은 시에서 "학원(學園)에서 도시(都市), 도시 너머 궁궐(宮闕) 아래, 봄따라 왁자히 피어나는 꽃보래 돌팔매"라는 구절은 그날 시인이 목도했던 시위 장면들이었다. 시위대열은 먼저 각급학교에서 강렬하게 나타났으며 학생들의 시위는 도시에 확산되었고, 그렇게 확산된 도시의 봉기는 곧바로 궁궐 아래, 즉 효자동 너머 경무대에까지 확산되었음을 시인은 똑똑히 보았던 것이다. 또한 거리 곳곳에서 학생들과 시민들은 주로 구호를 외치거나 혹은 정치깡패, 경찰에 맞서 돌팔매를 날리며 저항했던 것 역시 시인의 시선에 강렬하게 포착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시인은 이러한 시위의 모습들을 보며 다음과 같이 생각했다.

"4월 19일, 그것은 우리들의 조상이 우랄고원에서 풀을 뜯으며 양달진 동남아 하늘 고운 반도에 이주오던 그날부터 삼한으로 백제로 흐르던 강물, 아름다운 치마자락 매듭 고운 흰 허리들의 줄기가 3·1의 하늘로 솟았다가 또 다시 오늘 우리들의 눈앞에 솟구쳐 오른 아사달, 아사녀의 몸부림, 빛나는 앙가슴과 물구비의 찬란한 반항이었다."

즉, 대규모로 시위가 터져 나왔던 4월 19일에 대해 시인은 한국 역사의 큰 궤적 속에 위치시키고 있었다. 또한 이날의 민중봉기에 대해 시인은 3·1운동과 연결된 자발적 시위로 보았으며 그 민중운동의 계보는 아사달, 아사녀, 즉 단군 이래로 순수하게 면면히 이어져 내려온 역사 발전의 거대한 물줄기로 보았던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시인은 이 시위의 현실적인 성격에 대해 어떻게 생각했는가? 이는 다음의 구절에서 명확하게 확인해 볼 수 있다.

"광화문 앞마당, 효자동 종점에서
노도처럼 일어난 이 새피 뿜는 불기둥의
항거……
충천하는 자유에의 의지……"

이 시구에 의한다면 시인은 광화문 거리를 넘어 경무대가 바라다 보이는 효자동 전차 종점에서 불의한 정권에 사자후를 날리는 시민의 모습은 "충천하는 자유에의 의지"였다고 결론내리고 있다. 결국 이날의 항거의 최후의 목표를 시인은 '자유'로 보았으며 항거 자체는 바로 이 자유에 대한 의지를 표출하는 매개였음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시인은 훗날 다른 시에서 4월 혁명 때만 한국 역사에서 유일하게 맑은 하늘이 빛났던 날이라 회상한다. 이는 시인의 뇌리에서 4월 혁명이 모든 정치사회적 현실을 판단하는 잣대로 남았기 때문이었다. 바꾸어 말한다면 시인이 바람직하게 나아가야 할 유토피아적인 시적 세계는 4월 혁명 이후에는 볼 수 없었다는 의미가 된다. 그렇다면 시인은 4월혁명 이후 어떠한 생각을 하게 되었던가?

3. 시인의 기억 속에 남은 4월: '갈아엎는 달'

앞서 우리는 시인이 1960년 4월 19일 당일에 보고 또 느낀 점에 대해 살펴보았다. 시인은 당시 직장이었던 교육평론사에서 『학생혁명시집』의 간행을 맡아보면서 부단히 4월 혁명에서 보고 느꼈던 것을 예리하게 다듬어나갔다. 이후 그의 현실 참여시는 모두 4월 혁명의 영향이 강하게 나타나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그렇다면 시인은 이후 4월 혁명에 대해 어떻게 기억했으며 더 나아가 현실에 어떻게 적용시키고자 했을까? 그것에 대해 살펴볼 수 있는 자료는 시 「4월은 갈아엎는 달」과 「껍데기는 가라」를 들 수 있다.

먼저 「4월은 갈아엎는 달」을 살펴보자.

“강산을 덮어, 화창한
진달래는 피어나는데,
출렁이는 네 가슴만 남겨놓고, 갈아엎었으면
그 균스러운 부패와 향락의 불야성 갈아엎었으면
갈아엎은 한강연안에다
보리를 뿌리면
비단처럼 물결칠, 아 푸른 보리밭.

강산을 덮어 화창한 진달래는 피어나는데
그날이 오기까지는, 4월은 갈아엎는 달.
그날이 오기까지는, 4월은 갈아엎는 달.”

이 시는 시인의 현실인식이 4월 혁명을 통한 자기성찰에서 나아가 현실에 적용하고자 하는 고뇌가 묻어나 있다. 4월 혁명의 자발적인 민중봉기는 부패한 정권을 타도하는데만 머무를 수는 없는 것이었다. 시인은 4월 혁명 이후 아직도 “균스러운 부패와 향락의 불야성”인 점은 그대로임을 직시하고 있었다. 따라서 4월 혁명의 기세로 이러한 부정적인 것을 재차 일소해야 한다는 것을 역설하고 있었다. 그렇기에 시인의 기억 속에서 4월은 역사에서 이어져내려 온 부패의 고리, 향락, 즉 타락하는 사회 자체를 처음으로 ‘갈아엎어’ 본 달이었던 것이다.

또한 이후에 그의 대표적인 시였던 「껍데기는 가라」에서

“껍데기는 가라,
4월도 알맹이만 남고
껍데기는 가라”

라고 일갈하는 것 역시도 4월 혁명 이후 한국사회에 그대로 남아있었던, 비록 국민의 뜻으로 이승만정권이 붕괴되었지만 그와 비슷한 혼란상이 계속 남아있었던 당시 현실을 비판하는 시인의 사자후였다. 이는 4월 혁명이 구체적 준비 없이 이루어진, 사회구조의 근본적인 변혁에 착안하지 못해 미완의 혁명으로 끝난 것을 직시한 끝에 나온 결론이었다. 말하자면 다시 1960년 4월로 돌아가 사회의 근본적인 부조리를 시민의 자발적 힘으로 혁신시켜야 한다는 반성, 혹은 주장이었던 것이다.

결국 시인 신동엽은 4월 혁명을 통해 묵묵히 땅을 가는 민중들이 역사의 주체라는 신념을 굳히게 되었으며 아울러 사회의 모순을 근절하고 민중이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는 것이 바로 역사의 참된 발전이라고 보게 된다. 이는 1960년 4월 19일 그가 살았던 동네에서 시작하여 광화문, 효자동 앞거리에서 목도했던 장면 장면들이 이후 그의 시 세계를 규정한 결과였다고 볼 수 있다. 그런 면에서 돈암동, 동선동 일대의 당시 풍경은 시인의 삶의 거처이자 그의

껍데기는 가라 초고

시 세계의 원천이 되었다고도 볼 수 있겠다.

4. 그가 살았던 마을의 현재

그가 서울에서 첫 삶을 살게 되었던 곳은 앞서 말했듯 돈암동, 동선동 일대였다. 지금은 그와 그의 가족이 살았던 동네는 옛 모습을 잃은 지 오래이다. 그가 경영했던 고서점도 정리된지 오래이며 그가 1960년 보았던 길거리와 지금의 길거리는 흔적만이 남아있을 뿐 그날의 기억의 자취를 찾기란 쉽지 않다. 물론 그의 부인 인병선은 현재 성북구가 아닌 종로구 명륜동 일대에 짚풀생활사박물관을 열어 시인의 유지를 계승・발전시키고 있지만 본래 살았던 곳과는 다소 거리가 있다.

앞서 시인은 4월 혁명이 한국 역사의 발전 궤적 속에 위치시켰다. 한국 근현대사로 특정 짓는다면 1894년 동학농민운동에서 3・1운동의 궤적을 이어 다시금 자발적 민중운동으로 불의한 정권에 맞서 대대적으로 일어난 4월 혁명은 시인의 시 세계를 일신시켰을 뿐더러 이 혁명을 단순히 서울이라는 지역을 넘어 전국, 아니 한국 전체 사회를 바꾸는 일대 혁신이었다. 따라서 4월 혁명을 어느 특정 지역에서 일어난 운동으로 보는 것은 넌센스에 불과하며 시인의 예리한 관찰처럼 한국 역사의 거대한 물줄기를 튼 사건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그가 4월 혁명의 시인이 되게끔 한 공간이, 그 첫 시발점이 성북구 돈암동, 동선동 일대였다는 사실만은 변함없다. 그가 처음으로 민중이 자발적으로 일어나 불의한 정권을 쓰러뜨리는 것을 목도한 곳도 성북구였으며 아울러 혁명의 혈기에 넘친 청년학생들의 시 원고들을 꼼꼼하게 읽어보고 교정을 보았던 곳도 그의 집이 위치했던 성북구였다.

그가 시인은 민중의 자발적 혁명을 통해 사회가 변혁되는 것을 갈망했으므로 그의 지역을 놓고 본다면 1960년 4월 19일 시인이 새로 태어난 그 거리와 지금의 거리가 외양적으로 꼭 같을 필요는 없다. 그러나 자칫 단편적 사건, 혹은 일시적인 민중의 흥분상태로 기억될 수 있었던 4월 혁명을 어느 시인의 예리한 관찰력으로 혁명으로 승화시킬 수 있었던 공간, 비록 그때와 지금의 모습은 많이 달라졌더라도 우리는 시인의 정신 속에 남아있는 그 공간이 어디라는 것쯤은 똑똑히 기억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조강석, 2012, 「신동엽 시의 민주주의 미학 연구: 무엇을 희망해도 좋은가?」『한국시학연구』35, 한국시학회.
강계숙, 2004,「신동엽 시에 나타난 전통과 혁명의 의미」『한국근대문학연구』5, 한국근대문학회.

『경향신문』, 『동아일보』, 『한겨레신문』, 『조선일보』

4월도 알맹이만 남고 껍데기는 가라



4.19혁명당시 경기고등학교 학생들의 시위
시인이 말한 4월이란 바로 조국 민주화에 대한 순수한 열망을 가진 어린 학생들이 아니었을까?

2014年_
성북문화원 임원명단

원장_ 조태권 — 광주요 회장

부원장_ 이민영 — 학교법인 홍익학원 이사장

부원장_ 정근호 — 라이프어패럴 (주)리더무역 회장

감사_ 서영수 — 성북구 지방세 심의위원

감사_ 나선화 — 문화재청 문화재위원

이사_ 정미숙 — 한국 가구박물관 관장

이사_ 정상욱 — 동방대학원 대학교총장

이사_ 김의정 — 명인문화재단 이사장

이사_ 김영일 — (주)태명실업 회장

이사_ 이병한 — 새종암 새마을금고 이사장

이사_ 김영대 — 대성그룹 회장

이사_ 김예환 — 예일디자인 고등학교장

이사_ 이우영 — 그랜드 힐튼호텔 회장

이사_ 김기병 — (주)롯데 관광개발 회장

이사_ 정하경 — 한성대학교 명예교수

이사_ 노태섭 — 경상문화재 연구원 이사장

2대원장_ 천신일 — (주)세중그룹 회장

운영위원_ 강석원 — 대한건축가 협회장

운영위원_ 서세옥 — 전 서울대학교 미대학장

운영위원_ 전성우 — 간송미술관 관장

운영위원_ 최만린 —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고문_ 김성배 — 한진관광부 회장

고문_ 김영준 — 성신웹진 회장

고문_ 마상곤 — (주)협운해운 회장

고문_ 박창호 — (주)템피스 투자자문 회장

고문_ 박태호 — 원제한의원 원장

고문_ 신명수 — (주)정한개발 회장

고문_ 양창갑 — 서흥실업 명예회장

고문_ 이동찬 — (주)코오롱그룹 명예회장

고문_ 이병무 — (주)아세아 시멘트 회장

고문_ 이윤재 — (주)피죤 회장

고문_ 이의순 — (주)세방그룹 회장

고문_ 장치혁 — 고려학술문화 재단 명예회장

고문_ 정승소 — (주)동승 회장

고문_ 조양래 — (주)한국 타이어 회장

고문_ 허남각 — (주)삼영통상 회장

고문_ 허완구 — (주)승산 회장

고문_ 김해용 — (주)삼미산업 회장

명예고문_ 윤덕병 — (주)한국 야쿠르트 회장

명예고문_ 양대길 — (주)영우통상 회장

2013년 성북문화원을 후원해 주신 분들

강지미 김상덕 김영순 김원영 김종남 김해순 나연자 도경숙 박병호 성정숙 손미숙 심현애
온창순 유도희 유현숙 이강한 이건자 이경숙 이능조 이승미 이애진 이영희 이재용 이지연
이창순 이태화 이현진 임영빈 장재화 장지현 정영호 정인자 조부자 조태권 주광철 채순자
최돈홍 한경석 홍석호 대한불교조계종흥천사 (주)나무물산

여러분의 후원으로 『성북문화』창간호가 나올 수 있었습니다. 사무실에 들르실 때마다 맛있는 음식과 다정한 격려의 말씀을 건네주신 분들도 저희 직원들에게는 큰 힘이 되었습니다. 이 모든 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성북문화원
깊은멋·나눔·즐김

깊은 멋·나눔·즐김이 있는 열린 문화공간

2014 성북문화원 수강생모집

	봄학기(3~5월, 64기)	여름학기(6~8월, 65기)	가을학기(9~11월, 66기)	겨울학기(12~2월, 67기)
수강기간	12주	12주	12주	12주
접수기간	2014년 2월 한달간	2014년 5월 한달간	2014년 8월 한달간	2014년 11월 한달간
수업무료 참관기간	2014년 2월 둘째주	2014년 5월 둘째주	2014년 8월 둘째주	2014년 11월 둘째주

★수업무료참관 ★

관심있는 강좌의 참관을 통하여 강좌내용과 준비해야 할 사항을 미리 알아보고,
담당 선생님과의 상담으로 보다 나은 맞춤형 강좌를 수강하실 수 있습니다.

접수방법 인터넷 및 방문접수(성북문화원 2층 사무국, 선착순 접수)
문의전화 02-765-1611
홈페이지 www.isbcc.or.kr
결제방법 방문접수 - 현금 및 카드결제
인터넷접수 - 계좌이체
입금계좌 우리은행 1005-201-270900 (예금주: 성북문화원)

★2014 정회원 모집

연 회 비 : 3만원
혜 택 : 문화강좌 10% 할인, 연1회 역사문화탐방 무료, 문화행사 및 특강 우선초대,
문화원 발행 책자 및 소식지 제공, 정기총회 참석자격 부여 등
3.접수기간 : 2014년 1월 한달간
4.접수방법 : 인터넷 및 방문접수(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강좌소개

성인강좌 멋과 흥이 살아있는 전문강좌

프로그램	요일	시간	정원	수강료(12주)
경기민요	금	13:00 ~ 15:00	20명	60,000원
규방공예	금	10:00 ~ 12:00	20명	60,000원
기초소묘에서 유화까지	화	10:00 ~ 12:00	20명	70,000원
유화로그리는 인물화	화	13:00 ~ 15:00	20명	70,000원
동화구연가 양성과정	화	14:30 ~ 15:00	20명	70,000원
시낭송가 양성과정	화	16:00 ~ 17:20	20명	70,000원
문예창작실기	금	10:00 ~ 12:00	20명	80,000원
사군자A	일	10:00 ~ 12:00	20명	60,000원
사군자B	월	13:00 ~ 15:00	20명	60,000원
선소리산타령	화	10:00 ~ 12:00	20명	60,000원
수묵산수화A	목	09:30 ~ 11:30	20명	60,000원
수묵산수화B	목	11:30 ~ 13:30	20명	60,000원
스포츠댄스	월	10:00 ~ 11:30	20명	120,000원
원어민영어회화(초급)	월/수	10:30 ~ 11:50	20명	120,000원
원어민영어회화(중급)	화/목	16:00 ~ 17:20	20명	120,000원
원어민영어회화(하급)	화/목	13:30 ~ 14:50	20명	60,000원
장구	금	11:00 ~ 13:00	20명	60,000원
한국의 역사와 문화유산	수	14:00 ~ 16:00	20명	60,000원
한국무용(초중급)	목	13:30 ~ 15:00	20명	60,000원
한국무용(심화)	목	15:00 ~ 16:30	20명	60,000원
한글서예A	수	09:10 ~ 11:10	20명	60,000원
한글서예B	수	11:10 ~ 13:10	20명	60,000원
한글서예A	목	14:00 ~ 16:00	20명	60,000원
한글서예B	목	16:00 ~ 18:00	20명	60,000원

★수강시 유의사항

1. 계좌이체시 입금자명은 실제 수강자 또는 인터넷 신청자명으로만 가능
2. 적정 수강인원에 미달될 경우 폐강될 수 있음
3. 교재 · 재료비는 별도 개인 부담
4. 총 12주 교육일정 중 법정 공휴일은 보강하지 않고 기타 사유로 인한 휴강은 보강함

★환불·변경 규정

1. 환불·변경신청: 방문신청만 가능(전화, 인터넷 접수 불가)
2. 구비서류: 신분증, 영수증, 통장사본(통장정보로 대체가능)
(대리환불·변경 신청 : 상기 지참물과 대리인 신분증 필요)
3. 환불 및 변경차액 지급방법: 무통장입금(매월 말 일괄입금)
현금반환, 카드취소 불가
4. 강좌변경: 1회에 한하여 가능
5. 타인명의로 대리 수강한 자는 추후 수강신청 불가
6. 환불금액
1) 폐강 시: 전액환불
2) 개강 전: 전액환불
개강 후: 당해 월을 제외한 남은 달만 환불
(당해 기수 마지막 달(2, 5, 8, 11월) 환불 불가)
7. 환불 대신 다음 기수로 연기 불가

성인강좌 아기와 엄마의 행복교감

프로그램	요일	시간	정원	수강료(12주)
오감발달놀이1 (23~36개월)	월	12:00 ~ 12:40	16명	75,000원
오감발달놀이2 (15~22개월)	월	12:50 ~ 13:00	16명	75,000원
오감발달놀이3 (9~14개월)	월	13:40 ~ 14:20	16명	75,000원
오감발달놀이4 (5~8개월)	월	14:30 ~ 15:10	16명	75,000원
뮤직플레이1 (25~36개월)	수	10:30 ~ 11:10	12명	75,000원
뮤직플레이2 (14~24개월)	수	11:20 ~ 12:00	12명	75,000원
뮤직플레이3 (6~13개월)	수	12:10 ~ 12:50	12명	75,000원

어린이강좌 튼튼한 체력과 창의력 향상

프로그램	요일	시간	정원	수강료(12주)
오감발달놀이1 (23~36개월)	월/수	12:00 ~ 12:40	16명	75,000원
오감발달놀이2 (15~22개월)	월/수	12:50 ~ 13:00	16명	75,000원
오감발달놀이3 (9~14개월)	월/수	13:40 ~ 14:20	16명	75,000원
오감발달놀이4 (5~8개월)	금	14:30 ~ 15:10	16명	75,000원
뮤직플레이1 (25~36개월)	금	10:30 ~ 11:10	12명	75,000원

★성북문화원 오시는 길

- 지하철 4호선 한성대입구역 하차 6번 출구
→ 한신·한진 APT 방향 도보 3분거리
- 지선버스 1111, 2112번 삼선교(성북문화원)하차
- 마을버스 01번 삼선교(성북문화원)하차

